

碩士學位論文

地域言論의 內的 統制要因에 關한 研究

－ 濟州地域 緣故主義를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玄 東 憲

2009年 1月

地域言論의 內的 統制要因에 關한 研究

- 濟州地域 緣故主義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최낙진

玄東憲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月

玄東憲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1月

Research on the Inner Control Factors of Local Media Report

- Focus on the Relationship of Jeju Province -

Dong-Hun Hyun

(Supervised by professor Nak-Jin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09. 1.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
2. 연구 목적 및 의의	2
II. 이론적 배경	4
1. 언론의 내적 통제요인에 대한 논의	
1) 언론 통제의 개념 및 유형	4
2) 언론의 내적 통제요인	7
3) 내적 통제와 게이트키퍼(gatekeeping)	12
2. 연고주의(緣故主義)에 대한 논의	
1) 연고주의의 개념 및 속성	18
2) 사회적 관계(network)로서 연고주의의 기능과 의미	20
3) 제주지역 연고주의의 특성	23
3. 언론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1) 언론과 연고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	26
2) 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	30
IV. 연구문제 및 연구설계	32
1. 연구문제	32
2. 분석수준의 결정	35
1)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	36
2)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	36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자 선정	37
2) 자료 수집	38
3) 자료의 분석 방법	40
V. 연구결과	41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	
1)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41
2)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47
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	
1) 방송사와 신문사간 인구통계학적 비교분석	56
2)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영향에 관한 방송사와 신문사간 비교 분석	57
3)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영향에 관한 방송사와 신문사간 비교 분석	60
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결과	
1)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의 인구통계학적 비교분석	64
2)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의 심층 분석	67
4. 연구 결과 요약	72
VI. 결론 및 제언	78
1. 결론 및 논의	78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4
【참고문헌】	86
【영문 초록】	92
【부록: 설문지】	94

<초록>

지역언론의 내적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연고주의를 중심으로

현 동 현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이 연구는 지역언론의 뉴스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적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가 제주지역 언론 보도에 있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4개 방송사와 4개 일간지 등 매일 뉴스를 생산하는 8개 지역언론사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지역 기자들은 언론보도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영향은 대체로 받지 않는 반면 직장 동료·상사나 경영진·주주 등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로 인한 영향은 상당 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타 지역의 결과와는 그 영향 정도나 양상에 있어 다른 차이를 드러냈다. 즉 제주지역 기자들은 언론보도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로 인한 영향은 대체로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영향 역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영향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주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가 작용하는 양상을 살펴 본 결과, 연고주의가 미치는 영향 정도는 대체적으로 근무 경력이 오래 될수록, 또한 조직 내 직위가 높을수록 연고주의의 영향력도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분석에서 더 확연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제주지역 기자들은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자들은 언론보도에서 연고주의가 갖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면서, 자기통제를 통하여 기사의 선택과 작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뉴스 생산에 있어 연고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활용, 극대화하는 방안을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ey Words : 지역언론, 내적 통제요인, 게이트키퍼,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 제기

지역언론은 그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이 강조되면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정책적 이슈들을 지역언론들이 어떻게 틀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고영철·최낙진, 2006, p.7).

그렇지만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정상윤(1998)은 지역방송 뉴스가 과거와 달리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을 공정하게 감시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거나 사안에 따라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박성현(2004)은 광주지역의 언론보도 분석을 통하여, 지역언론은 지방의 정치, 경제, 행정 등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생명인데도 지역문제에 대한 지방언론의 관점은 되도록 피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였다.¹⁾ 또한 장호철(2005)은 지역언론사 중에는 그 자체의 건전한 경영에도 불구하고 언론 본연의 위상에 벗어난 과행적 행위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스스로 평가절하를 자초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기득권층 및 토착세력들과의 유착, 관연유착의 문제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²⁾

결국 지역언론이 지역민들을 위해 지역문제를 진단하거나 지방정부의 정치나 행정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 고유의 사명을 수행하는데는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언론이 저널리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에는 뉴스 생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제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의 생산과정에 작용하는 통제요인은 크게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로 나누어 볼

1) 박성현, 『지방분권과 지역언론 역할에 관한 연구-광주지역언론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74

2) 장호철,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언론의 역할 연구』, 부산: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31

수 있다. 내적 통제에는 언론사 소유주·경영진에 의한 통제와 데스크에 의한 통제, 신문사 자율규제에 의한 통제, 기자 개인적 차원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외적통제에는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통제, 사회적 통제가 있다(Breed, 1954, pp.329-330; 이효성, 1997, p.350 재인용).

언론의 보도과정에 미치는 통제 요인은 언론기관 내부에서 기사작성과 기사선별, 보도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과정에서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기자 개인적 수준에서부터 해당 언론이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복잡다단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특정 기사가 언론사에 따라 크게 또는 축소 보도된다든지, 아니면 긍정 또는 부정 등 보도성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정상윤, 1995, pp.144-159).

이런 가운데 지역 언론사들은, 중앙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규모와 적은 인적구성, 좁은 광고시장 등 대내외적인 통제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역이라는 지리적·사회적 특성상 혈연·지연·학연 등 이른바 연고주의(緣故主義) 성향이 강하고, 또한 대부분의 지역 언론인들이 연고지라는 명목으로 학연 혹은 지연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이트키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송인호, 2001, p.36).

주정민·박복길(2007)은 지역언론이 그동안 지역사회라는 독특한 학연과 지연의 연결고리 때문에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뉴스 보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³⁾ 마동훈(1986)은 혈연·지연·학연이 언론보도에 유용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언론의 뉴스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즉 언론사 소유주나 경영진, 데스크, 기자 등 조직 내부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이트키퍼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주의가 미치는 게이트키퍼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주지역 역시 섬 고유의 연고주의를 지니고 있다.

3) 주정민·박복길, 『지역방송 뉴스 특성, 구성방식과 지역성 구현과의 관계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2007, p.305

4) 마동훈, 『국회의원의 언론매체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p.136

제주지역은 ‘마을 내에 매놈(완전한 남)이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친척 관계로 얽혀 있었다. 같은 마을 안에서 혼인이 이뤄지는 통혼권(通婚圈)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고, 이는 곧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혈족과 인척이 중첩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동네어른 모두를 ‘삼촌(삼촌)’으로 부르는 관행이 정착했을 정도로, 제주지역의 공동체의식은 특이한 혈연·지연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섬이라는 지리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한 특이한 연고주의를 갖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중앙언론은 물론 타 지역과는 다소 상이한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언론의 뉴스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적 통제요인들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언론 보도에 있어 연고주의가 어떻게 게이트키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제주지역 언론사들의 게이트키퍼 과정에 있어 연고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제주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의 여러 유형과,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 유형에 따른 연고주의의 양상(樣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 언론보도에 나타나는 연고주의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제주지역 언론보도에 미치는 연고주의의 특성을 통해, 중앙언론 혹은 타 지역 언론보도와 구분되는 유의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뉴스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대한 제주지역 기자들의 인식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제주지역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 과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

5)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3, p.401-402

정적인 면 등 그 특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한 지역언론의 경우 연고주의의 영향이 딱히 부정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언론 보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지역언론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언론의 내적 통제요인에 대한 논의

언론의 보도과정에 미치는 통제요인(統制要因)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언론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치적 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논의와 함께 경제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언론의 보도과정에 미치는 통제요인 중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언론 통제의 개념 및 유형

언론은 지금까지 수많은 통제를 받아오면서 성장해 오고 있다. 여기서 '통제(control)'의 개념은 매스미디어 정보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내·외적 요인들의 작용 또는 그 힘을 말한다(서정우, 차배근, 최창섭, 1983, p.46).

힘을 근거로한 언론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원은 정치적 논의와 관련을 맺어왔다. 근대적 의미의 '자유'라는 개념이 생성되기 전까지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권 아래 모든 것이 통제의 대상이었다. 근대 시민혁명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절대주의 체제 아래에서 모든 인쇄·출판물은 검열 제도 혹은 허가 제도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지 권력자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이때의 검열체제는 신홍 시민계급과 반체제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유럽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한병구, 1994, pp.316 -318). 이처럼 언론 통제라는 개념은 언론에 대한 불합리한 통제에 대항하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론 통제의 반대편에는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다⁶⁾.

따라서 '자유'와 '통제'라는 개념은 상호작용적인 개념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6) 흔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논의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 즉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양승목 역, 1993)

논의 한편에서는 반드시 언론의 통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는 어떤 뉴스 자료를 통과시킬 지의 여부나 통과된 뉴스 자료를 동일한 형태로 내보낼지 또는 변형시켜 내보낼 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뉴스의 결정행위 즉, 게이트키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라고 일컫는다(서정우 차배근, 최창섭, 1983, pp.44-45).

오펜하임(Oppenheim)의 정의에 의하면 통제(統制)란 ‘어떤 행위자가 선택을 내리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하는 다른 행위자의 행동’ 이라고 한다. 부연하면 통제는 영향력 행사와 제한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유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영향력의 행사는 제재의 위협, 설득 또는 만류나 조건반사 등이다. 한편 제한은 행위자가 신체적인 폭력, 침탈위협, 법적인 제한 또는 피행위자의 환경조작 등 노골적이고 표면적인 행동으로 피행위자의 행동선택에 있어서 대안들을 막아버리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Oppenheim, 1961 ; 김진홍 역, 1983).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언론에 대한 통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말하는 것으로 언론기관과 언론인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다(언론연구원, 1994, p.930).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미디어는 어떤 뉴스 자료들을 통과시킬지의 여부나 통과된 뉴스 자료를 동일한 형태로 내보낼지 또는 변형시켜서 내보낼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뉴스의 결정행위, 즉 게이트키퍼 (gatekeeping)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 라고 일컫는 것이다(서정우 외, 1983, pp.44-45).

언론통제의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언론통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통제변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언론기관의 외적 통제와 내적 통제로 구분되며, 둘째는 언론통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통제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조직적 차원의 통제와 개인적 차원의 통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통제와 언론사 통제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구분은 사실은 외적 통제·내적 통제의 구분기준과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서정우 외, 1983, pp.45-52; 유정아, 2000, p.11).

이같은 통제에 대한 구분 기준을 살펴본 결과 언론에 대한 통제는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힘의 작용점이 언론기관 외부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부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외적 통제와 내적 통제로 나뉘지고, 특히 내적 통제는 다시 힘의 작용점이 언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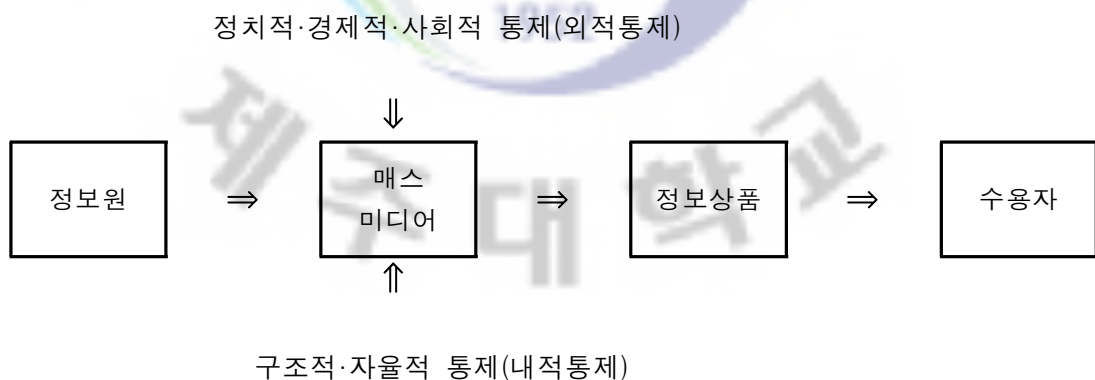
내부의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지는가, 아니면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는가에 따라 조직적 차원의 통제와 개인적 차원의 통제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우선 외적 통제는 첫째 정부나 권력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통제, 둘째 광고주나 기업 등의 경제적 통제, 셋째 수용자나 사회 이익단체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내적 통제는 첫째 언론사의 소유주 및 경영진의 경영권으로부터 나오는 소유주·경영진으로 인한 통제, 둘째는 언론기관의 보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보도국·편집국 내의 데스크에 의한 통제, 셋째는 윤리강령 등 언론사 자율규제에 의한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의 이데올로기, 가치관 등에 따른 기자 개인차원의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통제는 항상 서로 갈등관계에 있으며, 때로는 서로가 견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들 통제들의 역동성은 연속적인 과정이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다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는 여러 가지 외적 또는 내적 통제와 긍정적·부정적인 통제들의 상호 견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미디어 자체의 고유한 기능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정우 외, 1983, p.47).

이처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통제 요인들의 유형은 아래의 [그림 2-1]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1] 언론통제의 유형들



※ 출처 : 서정우 외, <언론통제이론>, 서울:나남, 1983, 47쪽 그림 재구성

2) 언론의 내적 통제 요인

뉴스의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통제요인의 경우 최근 언론사의 이념논쟁이나 기업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내적 차원의 연구는 언론 메시지에 언론 조직과 언론인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로 인정되고 있다.

(1) 소유주·경영진에 의한 통제

언론 소유주가 언론사의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언론 소유주는 언론의 편집방향을 정하고, 그 방침을 실행할 간부를 임명하고, 종사자를 고용한다. 또한 언론소유주는 편집책임자에게 자신의 일반적인 편집방침을 시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보도나 사설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이나 비판까지 개진한다. 언론 소유주는 이러한 지시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임원이나 종업원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해 해고하거나,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한다. 이러한 언론 소유주와 경영진, 중간간부, 일선 언론인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단순히 직업관계가 아니라, 계급적 권력관계구조라고 할 수 있다.

언론기업의 이러한 구조는 기자들이 경영주에 의해서 승인된 편집정책에 따라 취재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편집자는 기자를, 발행인은 편집자를, 소유자는 발행인을 각각 통제한다. 다시 말해 언론 소유주는 회사 방침을 통하여 보도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남효윤, 2005, p.17). 박준영(1997)은 뉴스결정 과정에 있어서 미디어 조직문화와 경영진의 간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영진은 기자와 편집권에 대한 영향력과 인사문제 등으로 뉴스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⁷⁾.

또한 유재천, 이민웅(1994)이 국내 중앙언론인 196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경영진의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언론인의 61.8%가 기자의 언론직 수행과 관련하여 언론사 경영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직자 403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경영진의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88.6%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해 실제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공직자들이 기자의 언론직 수행에 있어서 언론사 경영진의 영향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7) 박준영, 『韓國新聞 뉴스 決定의 力學關係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pp.368-369

특히 언론사 경영층은 그들과 이해관계가 큰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언론 내용에 포함시켜 그 자신의 영향력을 표출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에 의한 영향력 행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언론 소유주의 기본 관심사 중의 하나는 자신이 소유한 언론기업의 이윤추구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존립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상윤, 1995, p.44)

따라서 소유주는 뉴스가치나 중요성보다는 언론 조직의 이윤추구를 위한 마케팅 계획에 알맞게 기사를 선택하도록 편집의 경계선과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보도 내용에 관여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 경영층의 정치적 당파성이나 자신의 언론기업이 지니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도 언론의 뉴스 결정에 개입하거나 편집정책에 개입할 수도 있다. 결국 경영주는 언론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책임과는 관계 없이 자신이 소유한 기업을 위한 정책을 세움으로써 전반적인 언론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⁹⁾

지역언론, 특히 지역신문의 경우 소유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통제가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신문 소유주와 경영진들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신문의 소유주와 경영진이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지역신문의 소유주와 경영진이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남효운, 2005, p.14).

하지만, 언론 소유주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언론의 편집권을 노골적으로 장악하여 통제하고 간섭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소유주가 명시적으로 간섭하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하급자들이 그들의 방침이나 의중을 예상하여 스스로 행하는 검열을 이른바 ‘예상검열’ 또는 ‘자기검열’이라고 부른다. 신문 편집국장이나 방송국 프로듀서는 간부진의 성향에 맞게 뉴스를 편집한다.¹⁰⁾

이효성(1997)은, 자기검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주가 편집에 노골적으로 간섭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소유주가 편집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

8) 유재찬이민웅, <정부와 언론>. 서울:나남, 1994, pp.61-62

9) Hanlin, B, 『Owners, editors and journalists. In A. Belsey & R. Chadwick』, 1992, pp.33-48

10) 서정우, 차배근, 최창섭, <언론통제이론>, 서울: 법문사, 1983.

어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자기검열은 언론종사자들 자신에 의해서는 검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지역언론의 소유주와 경영진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언론사 내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국 소유주와 경영진은 기자 및 편집권에 대한 영향력과 인사권 등을 앞세워 뉴스결정에 결정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2) 데스크에 의한 통제

기자과 편집자, 발행인, 소유주들은 각각 언론조직 내에서 각자의 특수한 입장을 지니게 된다. 이들은 각각 그들의 역할에 따라 조직에서 대두되는 이슈에 대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그 이슈에 대한 입장을 서로 달리하게 된다.

기자들은 취재와 기사작성이 업무인데 반해, 데스크는 특정 기사를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사장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기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들이 접촉하는 정보원 지향적인데 반해, 데스크는 수용자의 알권리와 조직의 목표지향이라는 이중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기자와 데스크는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데스크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함으로써 기자들로 하여금 다음부터 기사를 쓸 때 데스크의 생각과 의도에 부합해 쓰도록 암시를 주기도 한다. 데스크는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과 함께 판매촉진을 조화시켜 조직체의 전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책임도 있다(남효운, 2005, p.17).

또한, 데스크들은 예전보다 회사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최상의 재정이라는 시각으로 예산이 어디에 적합하며, 뉴스취재가 전체적인 전략계획 중 어디에 적합한가를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오늘날 데스크의 업무는 뉴스의 편집 혹은 편성보다는 관리의 기능 즉, 사람을 관리하고, 체제를 관리하고, 자원을 관리하는데 있다(Shoemaker & Reese, 1991, p.202, 재인용).

유재천, 이민웅(1994)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71%의 언론인이 취재 및 보도 시간부의 영향을 다소 또는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편집정책의 영향과 관련하여 언론인의 76%가 편집정책에 의해 기사의 취재 및 보도가 크든 적든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11) 유재천·이민웅, <정부와 언론>. 서울:나남, 1994, p.63

위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데스크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통제를 가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자들에게 묵시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결국 데스크는 뉴스의 편집과 조직 내의 중간 관리자, 그리고 판매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자들의 보도자료를 포함한 기사작성에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언론사 자율규제에 의한 통제

언론의 이윤 극대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자구책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자율규제에 대한 요구는 미디어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일정 형태의 내적 자체비판이 필연적인 요소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매스미디어는 각기 그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언론인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윤리강령의 특성은 실제 실무담당 저널리스트들이 지켜야 하는 실제적인 제반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기 보다는 윤리의 진실성 문제나 이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¹²⁾

언론의 자율규제기구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혹은 그 책임을 스스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개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러한 기구는 언론의 참여와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언론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중매체 종사자의 전문성과 매체내용, 특히 보도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상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건의나 불만을 처리해 주는 역할이다.

이러한 자율규제기구의 의의는 첫째,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수호한다는 것이다. 즉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표리관계에 있으며, 사회적 책임의 수행여부는 언론인의 윤리의식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며, 윤리기구의 제일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율적 윤리기구는 언론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는 점이다(김동철, 1987, p.301).

12) 남효윤, 앞의 논문

그러나 언론사 조직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율적인 내적 통제에는 전통적인 규범이나 문화, 관행 등도 있는데, 이것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언론사의 규범질서는 사시, 사규, 회사방침이나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명시적 규범질서와 회사의 문화, 전통, 분위기 등으로 대표되는 비명시적 규범질서, 그리고 사주나 경영주의 경영철학, 정치적 신념, 언론관, 개인적 취향 등에서 유래되는 규범질서 등이 있다(홍은희, 2002, p.30).

언론인들은 이러한 규범질서에 순응하게 된다. 그 주된 이유는 불복에 대한 제재의 두려움과 상급자에 대한 존경심과 의리감, 자신의 승진욕구, 순응하지 않을 경우 그 행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집단외의 결여, 조직 속의 핵심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 등을 들 수 있다(이현숙, 1997, pp.19-20).

결국 언론의 자율규제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전한 언론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율규제 및 자율규제기구가 제 기능을 다 할때, 언론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4) 기자 개인적 차원에 의한 통제

뉴스 내용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질문 중의 하나는 언론인 개인의 성격, 배경, 경험, 정치적 태도, 가치관, 신념, 역할 등이 어느 정도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기자의 개인적 성향이 미디어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한마디로 말하기란 매우 어렵다.

간스(Gans, 1979)는 미국의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으로 민족 중심주의, 이타적 민주주의, 책임 자본주의, 목가주의, 개인주의, 온건주의, 사회질서 등을 꼽고, 이것이 뉴스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자의 개인적 신념과 가치, 정치적 이념 역시 정치 이슈를 다루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진보와 보수 성향의 정치적 태도는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미디어 프레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McLeod & Detender, 1999; 남효운, 2005, p.20 재인용).

기자의 개인적 성향들이 보도 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언론인과 공직자 사이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유재천, 이민웅(1994)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언론인 스스로는 24.6%만이 기자의 개인적 성향이 보도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언론인은 고작 5.7%에 그쳤다. 반면에 공직자의 경우, 50%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을 합치면 무려 94.8%가 기자가 개인적 성향이 크든 적든 뉴스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인 스스로의 인식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¹³⁾

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기자 개인의 성향 및 태도는 어떤 식으로든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내·외적 요인의 작용이 크지 않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3) 내적 통제와 게이트키퍼(gatekeeping)

언론의 내적 통제는 다양한 내재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대한 뉴스의 가치 및 선별 등의 과정인 이른바 게이트키퍼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이트키퍼(gatekeeping)이란 일반적인 용례로는 어떤 메시지가 선택 또는 거부되는 현상을 말하지만,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의 게이트키퍼는 뉴스 미디어 조직 내에서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미디어 조직 내에서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 뉴스가 취사선택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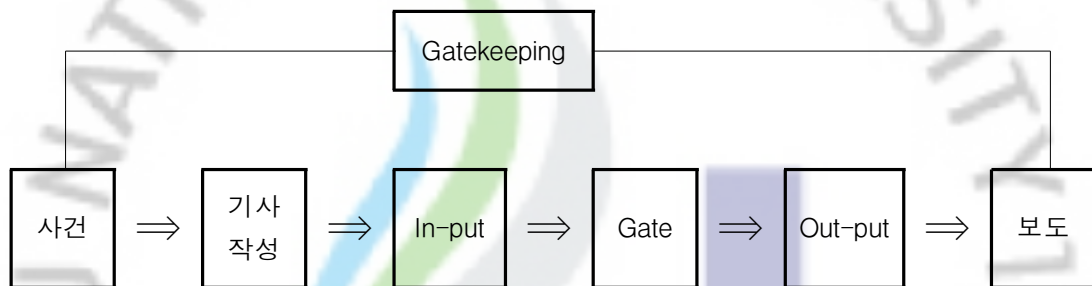
언론보도의 연구에 있어서 게이트키퍼는 언론의 내적 통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내연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론의 내적 통제는 게이트키퍼를 포함하는 언론기관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제한과 규제를 말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내적 통제 연구에 있어서 게이트키퍼는 언론기관 내부의 보도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유정아, 2000, p.38).

뉴스의 선택과 거부는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요인의 예로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계급적 배경, 성장배경, 교육배경,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게이트키퍼가 일하는 조직의 가치, 규범, 전통 등을 들 수 있다. 스투어트 후드(S. Hood, 1972)에 의하면, 오늘날 매스 미디어의 게이트키퍼는 과반수가 중산층 의식을 소유하며 갈등보다는 합의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들의 뉴스관을 결정 짓고 또 뉴스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

13) 유재천·이민웅, <정부와 언론>, 서울: 나남, 1994, p.58.

Beckor(1983)에 의하면 게이트키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요인들로는 게이트키퍼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태도나 가치 및 직장 내의 사회적 압력, 그리고 언론인 자신과 직장의 규범이 합리적으로 규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는 언론인 자신이 취하는 사적 이익의 추구행위와 개인적 태도의 역할 때문에 처벌은 극소화하려고 하거나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공리적 동기가 전문적 직업활동에 작용한다. 이러한 작용들은 공정보도의 내재적 한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게이트키퍼에 관한 연구들에서 지적되는 과정을 다음의 [그림2-2]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2-2] 언론보도에 대한 게이트키퍼의 회로도



※ 출처 : 김원용 역, <매스미디어 사회학>, 서울:나남, 1996, 116쪽 그림 재구성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게이트키퍼 개념은 매체 조직 내에서 기사의 취사선택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뉴스의 흐름상에 있는 기자, 부장, 국장 등이 각각의 게이트키퍼로서 뉴스 유통을 좌우하는 결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범주화되었다.¹⁴⁾

그러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두고 매체 소유주와 경영진, 정부, 자본, 규제기관, 경쟁매체, 광고, 독자 등이 게이트키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연구에서는 신문매체의 소유주와 경영진의 내적 게이트키퍼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

게이트키퍼에 관한 연구는 개인으로부터 조직과 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Hirsh는 직업적 차원, 조직적 차원, 제도적 차원의 분석 수준을 제

14) 이강수.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게이트키퍼 연구론』. 한양대논문집 11권, 1977. p.158.

시하였고¹⁵⁾, Shoemaker는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자체가 상당 부분 가공된 상태라는 점을 주목하며, 개인적 수준(혈연, 지연의 영향), 커뮤니케이션 관행수준(취재관행, 뉴스결정 요인), 조직수준(조직의 목표, 조직내의 갈등 영향), 사회·제도적 수준(정보원, 수용자, 광고주의 영향) 등으로 분류하였다¹⁶⁾.

(1) 개인적 차원

초기 고전적 게이트키퍼 연구들은 주로 미디어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일상적인 뉴스 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게이트키퍼의 행위를 개인 행위로 바라보고, 이를 분석할 때에는 게이트키퍼가 메시지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을 다루는 사고이론, 의사결정이론, 그리고 게이트키퍼 개인의 가치관, 신념, 역할, 교육정도, 경험, 배경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게이트키퍼가 뉴스가 생산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커뮤니케이터로서의 개인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행위주체이다. 현실 속의 사건을 발견하여 그것을 뉴스로 선정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개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논리이다. 즉 커뮤니케이터의 경험, 이해, 가치 그리고 편견 등이 게이트키퍼 과정에 영향을 주어 각 과정이 결정된다고 하겠다(최종수, 1986, p.12).

이러한 이유에서 초기의 게이트키퍼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적, 심리적 수준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선 출신 지역, 기자로서의 경력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지역언론의 경우에는 연고지라는 명목으로 언론인들이 지연 혹은 학연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게이트키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인이 회사 내에서 맡고 있는 직무의 유형이 포함된다. 기존의 게이트키퍼에 대한 연구들은 커뮤니케이터 개인만을 다루었으나 Shoemaker(1993)는 게이트키퍼의 역할과 직무가 게이트키퍼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게이트키퍼의 직무에 따라 사건을 다르게 접근할 뿐만 아니라, 뉴스가치를 다르게 평가할 가

15) Hir sh, M. Paul & Peter V. Miller , Strategies for communication research, Sage, 1977, pp.13-37.

16) Shoemaker . P amela J , 《게이트키퍼》, 최재완·하봉준 공역, 서울:남도, 1993

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게이트키퍼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Gans(1979)는 언론인들이 민족중심주의, 이타적 민주주의, 책임 자본주의, 지역주의, 개인주의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이 뉴스 생산을 이끌어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침해하는 기사는 가치에 부합하는 기사들에 비해 쉽게 기사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송인호, 2001, p.37 재인용).

대부분의 언론사의 경우 기사 선별과정에 참여하는 게이트키퍼는 부서의 수석 및 팀장-담당부서장(데스크)-편집국장 및 보도국장 등이 보통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신문의 경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부서의 수석 및 팀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데스크에게 기사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사 선별과정의 참여자들은 각자 독특한 업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치관과 사회적 윤리성, 개별 사안에 대한 이해정도 등에서 개인적인 시각의 차이를 갖고 있다. 언론사 내에서 언론보도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개인적 시각의 차이는 보도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유정아, 2000, p.32).

(2) 조직적 차원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조직은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게이트키퍼 개인이나 관행이 어떤 사건을 기사화할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고용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조직이기 때문이다.

Donohew(1967, p.67)는 발행인의 태도와 뉴스 내용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발행인의 태도가 뉴스 채널에서 가장 크고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발행인들이 경영진을 임명하고 동일한 절차에 의해 경영진이 편집인이나 기자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발행인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되어 미디어 소유주가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뉴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결국 광고주의 바람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기사가 실리거나 삭제되는 방식으로 언론사 내부조직에 따른 통제 행해지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Westley, Maclean의 게이트키퍼 모델은 미디어라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디어 안에는 많은 종사자들이 게이트키퍼로 작용한다. 즉 하나의 사건이 수용자에

게 전달되기까지 미디어 안에서 기자나 국장, 편집자 같은 다양한 개인의 손을 거쳐 가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¹⁷⁾.

Breed(1955)는 '편집국에 있어서의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 in the News Room)' 라는 논문에서 신문기자들이 발행인의 방침, 신문정책, 신문사의 규범을 삼투작용, 즉 사회화 과정에 의해 동조되어 감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기능성 직무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송인호, 2001, p.39, 재인용).

가령 엄격한 관료구조를 가진 미디어 조직은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개개인의 재량을 허용하는 경향이 크며, 조직의 중심에 위치한 게이트키퍼의 의견은 존중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역언론의 경우에는 중앙언론과 비교해서 규모가 작고 관료구조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에 의한 통제가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조직의 크기, 목표, 운영,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Shoemaker(1991)는 개인이나 조직 문화의 관행이 게이트키퍼 여부, 즉 정보의 취사 선택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이트키퍼를 고용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조직이다. 고용과 해고는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으로 조직의 관점에서는 조직의 관심사에 잘 부응해야 성공적이며, 필요한 게이트키퍼가 되는 것이다. 만일 조직이 원치 않고, 조직의 전체적 추구 방향에 반하는 게이트키퍼를 한다면, 조직은 그 게이트키퍼를 해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조직원의 조직 내부에서의 사회화는 조직원간의 가치 공유 관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게이트키퍼는 개인적 수준의 판단과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작업의 관행 수준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남효윤, 2005, p.36 재인용).

다시 말해 게이트키퍼의 행위 주체인 기자들의 가치관 등 개인적 차원의 게이트키퍼는 소속된 미디어 조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유창하(1989)는, 우리나라 언론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정부 등 외적 통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자들의 전문 직업관 및 윤리관의 결여라는 의식성향과 기업으로서의 언론매체가 지닌 미디어 조직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¹⁸⁾.

17) Shoemaker, Pamela J, *Gatekeeping*, 최재완·하봉준 공역, 서울: 남도, 1993, pp.38-40

18) 유창하, 『Gatekeeping의 내적통제에 관한 연구:기자들의 뉴스가치관과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1989, pp.27-32

(3) 사회·제도적 차원

게이트키퍼 연구는 개인적 차원으로부터 미디어라는 관료구조 속에서 내·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조직적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이후 다시 미디어라는 게이트키퍼를 사회의 하부구조 또는 제도로 보고, 그 게이트키퍼 과정을 전체 사회체계의 틀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 되었다. 원우현(1987)은 미디어 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언론조직 자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과 또 다른 하나는 언론조직과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게이트키퍼가 언론 조직에 종사하는 게이트키퍼(기자)의 활동이기는 하지만 언론 조직이 사회에 존재하면서 다른 조직과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정보원, 수용자, 광고주, 사회기관, 이익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보원은 뉴스 취재의 첫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언론인의 시간을 독점하고 상대적인 관점을 가진 정보원을 접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언론인이 모든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원의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특히 지역언론의 주요한 수입원인 광고료가 수용자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수용자도 중요한 게이트키퍼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차원숙(1990)은 지방신문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구성에 대해 지역이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한해서는 지방신문이 속한 시장의 통제를 받아 지방신문간의 언론활동에서 차별성이 드러남을 확인하였다²⁰⁾. 상업언론시대에 있어서 광고주의 영향력은 명약관화하다. Altschull(1984)이 ‘피리 값을 지불하는 자가 곡을 선정한다²¹⁾’ 고 말하였듯이 언론의 내용은 현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이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게이트키퍼 요인이다. 앞서 언론통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법, 규제, 면허, 세금 등을 통한 정부의 영향은 보편적인 현실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은 미디어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어 법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3국가와 개발도상국들에는 미디어의 사적

19) 원우현, 한국 언론제도의 구조적 특성, 한국미디어 문화비평, 서울: 나남, 1987, pp.104-105.

20) 차원숙, 『지방신문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구조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0.

21) Alt schull, H. J. *Agents of power*, New York : Longman, 1984, p.254.

인 소유가 허용되어도 갖가지 형태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준영, 1997, p.44).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게이트키퍼에 관한 연구는 게이트키퍼의 개념규정에 따라 크게 3가지 입장에서 연구, 발전되어 왔다. 첫째는 게이트키퍼를 미디어에 종사하는 뉴스 취급자 개개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어떻게 뉴스를 선정하고 처리하느냐를 연구하였다. 둘째는 게이트키퍼를 미디어라는 조직의 일부로 보고, 그 조직구조가 게이트키퍼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셋째는 근래의 입장으로, 미디어 자체를 사회의 하부조직인 게이트키퍼로 보고, 전체사회 체계의 틀 속에서 사회적 상황이 그 게이트키퍼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3가지 입장은 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의 문제이지, 서로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것은 기자 개개인은 개인인 동시에 미디어라는 조직체의 구성원이고, 미디어 자체는 전체사회의 하부조직이므로 개인과 소속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이 속해 있는 전체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2. 연고주의의 대한 논의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뉴스 기사를 선택, 작성함에 있어 게이트키퍼의 주체인 기자와 데스크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 조직적,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통제요인이 발생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기자나 언론사 모두 조직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적, 혹은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network)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 연고(緣故)로 인한 통제가 뉴스 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1) 연고주의의 개념 및 속성

연고주의(緣故主義)가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고주의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김선업(1991)은 이러한 원인으로 먼저 연고주의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합성(relevancy)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연고주

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형태로 오늘날 단지 일부에서 잔존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연고주의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연고주의에 대한 개념적 의미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가 어려웠던 것이다²²⁾.

연고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고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연고주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연고가 있다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관계나 인연이 있다는 의미를 갖지만, 모든 관계나 인연을 연고라고 볼 수 없다. 모든 인연이나 관계를 연고로 본다면 연고는 일반적인 사회관계나 인간관계라는 개념과 구분될 수 없는 것이다.

연고주의의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모든 사회관계를 연(緣)의 관계로 변용, 환원시켜 수용하려는 보편적 특성²³⁾”과 “혈연, 지연, 학연을 바탕으로한 인간관계의 편향²⁴⁾”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을 바탕으로 연고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을 살펴보면, 먼저 환원성(還元性)을 들 수 있다. 환원성은 모든 사회관계를 연(緣)의 관계로 변용, 환원, 수용하려는 특성이다. 환원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개인적 관계로 환원성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과거 지향적이다. 개인적 관계로서의 환원성은 관계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전체적 접촉의 논리로서 표현된다는 의미이다. 시간적인 환원성은 어떤 특정한 맥락이나 계기를 통해서 연결된 관계가 다른 맥락이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이다. 즉 한번 맺어진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 잠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연고주의의 기본적인 속성 두 번째는, 비공식성(非公式性)이다. 법적 체제나 관료화된 체계에 의해서 형식화되고 명문화된 성향을 공식성이라 한다면, 비공식성은 공식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즉 공식성으로부터 벗어난 특성을 뜻한다. 공식적 관계는 현대 산업사회에의 관료적 조직 아래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직위들간의 관계들로서, 이러한 관계는 연공서열이나 업적주의의 원칙하에서 수립된다. 반면 비공식성은 조직이나 집단의 공식적으로 규정된 역할체계와는 별

22) 김선엽, 『연고주의의 분석적 의의』, 고려사학회논문집 제6권, 1991, pp.317~318.

23) 임희섭,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서울: 나남, 1987, p.21

24) 홍동식, <연고주의와 지역감정>,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1990, p.60

도의 역할체계가 조직이나 집단 내에 위치하여 일정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박승관(1994)은 한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연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실권은 비공식적인 부문 즉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 이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비공식적·사적 조직원들은 권력의 핵심실세로서 조직과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주도하는 비공식적 소식통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²⁵⁾.

마지막으로 집단성(集團性)을 들 수 있다. 집단성의 의미는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는데, 특히 문화적 양식을 공유를 전제로 하는 집단성을 뜻한다. 즉 상징 혹은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상징적 집단성이다. 문화적 동질성이 생성되기 쉬운 가장 기본적인 귀속적인 사회적 생물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고가 형성되는 것은 연고의 이러한 속성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귀속의식이나 집단의식이 보다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집단성은 특정 역할체계의 통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다른 체계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을 말한다(김선업, 1991, pp.317-318).

이훈구(2003)는 나아가 종친회, 향우회, 동문회 등 다양한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도모하고, 정보나 통제, 그리고 자원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가부장적 가치 규범과 이에 기반한 집단성은 보다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연고를 매개로 한 집단성은 일차적으로 내집단을 중시하고, 개인의 목표는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태도 및 행동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²⁶⁾.

이와 같은 연고주의의 속성은 다양한 연고의 범위를 규정해 준다. 학연, 지연, 혈연은 물론이고 직업적 출신배경을 공유하는 직업연(職業緣)이나 군대연(軍隊緣)도 연고에 포함될 수 있다. 또 그밖에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도 연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을 연고주의의 대표적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회적 관계(network)로서 연고주의의 기능과 의미

기자와 데스크들 역시 사회구성원으로서 뉴스 기사를 선택, 작성함에 있어 여러 가

25) 박승관,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한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서울: 전예원, 1994, pp.46-70

26) 이훈구, <연고주의>, 서울:법문사, 2003, pp.168-169

지 사회적 관계로 인한 개인적, 조직적 통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즉 연고로 인한 통제요인 역시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다양한 관계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1) 혈연(血緣)

연고를 매개로 형성된 한국 사회의 관계구조는 가족 중심의 집단적 가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과거 유교에서 강조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효(孝)’사상에 입각한 가부장적 집단 중심의 가치관을 강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 권위를 중심으로 가정의 번영과 가문의 명예를 강조하는 독특한 사회적 관계구조가 형성, 유지되어 왔다(김태길, 1982; 문석남 외, 1990, p.22 재인용).

혈연관계는 제한된 친척관계 외에도 동족관계 형식을 띠고 보다 넓은 지역 단위에서 조직화되어 ‘문중(門衆)’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이익단체 내지 압력단체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김현주, 1995, p.199).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비록 혈연망의 범위는 축소되었지만 제사나 혼인 등 관혼상제를 매개로 혈연망은 가족 간의 결합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혈연은 학연과 지연, 학연, 직연 등과 같은 다양한 연줄과 결합함으로써 각 행위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연결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권장원, 2005, p.104)

(2) 지연(地緣)

출신지역 네트워크는 개인적 정체성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자원의 가동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향과 현재의 거주지 두 곳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섭취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Mayer & Mayer, 1974; 김현주, 1993,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지역은 변수(變數)라기 보다는 하나의 상수(常數)라는 점이 부각된다. 즉 사회 경제적 지위나 네트워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신지역에 따른 변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네트워크 구조에 있어 가족(친족)과 동창이 지역적 동질성을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지역성의 경우는 경향이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각 지역에 존재하는 서

열화된 고등학교 학연과 결합되어짐으로써 지역의 특성이 보다 차별화된 형태로 부각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연은 동일한 지역 내 존재하는 혈연과 고등학교 등 학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권장원, 2005, p.105).

(3) 학연(學緣)

학연망은 혈연망이나 지연망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혈연망과 지연망은 개인적인 의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귀속적 네트워크 내지 1차적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출신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연망은 개인적 선택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선택적 네트워크 혹은 2차적 네트워크인 셈이다(권장원, 2005, p.107).

따라서 혈연망과 지연망에 비해 학연망은 교환되는 정보나 재화가 비교적 풍부하다. 상대적으로 이익 지향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향점의 차이이다. 혈연망과 지연망은 제한된 공동체 영역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와 이를 통한 공동체의 단합에 지향점이 있는 반면, 학연망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의 이익을 기반으로한 자가실현(自家實現)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연망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은 자가실현을 위한 일종의 자원적 성격을 지닌다. 둘째, 규모의 차이이다. 학연망은 혈연망이나 지연망에 비해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그 규모도 혈연이나 지연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김현주, 1995, p.201)

(4) 직연(職緣)²⁷⁾

직연은 직장에 같이 입사를 했거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맺어진 인연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택과정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 중에서 보다 개인적이고 이익 지향 차원인 점이 특징이다. 개인적 이익은 학연망에 비해 보다 더 직접적이다. 특히 유교주의적 전통을 지닌 한국의 경우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직연망에 속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보상과 처벌이 가부장적 질서 또는 위계에 따라 주어진다는 점

27)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을 대표적인 연고주의의 유형으로 분류한 반면, 권장원(2005)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개입된 연줄, 연고의 유형을 혈연망, 지연망, 학연망, 직연망 등 네 가지로 분류하면서, 직연망은 혈연, 지연, 학연이 내재된 총체적이면서 개인적 성향이 강한 네트워크라고 설명하였다.

에서 학연의 연장선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인원 선발과정에서부터 행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혈연, 지연, 학연의 네트워크에 내재한 특성이 동시에 작용한다. 즉 직연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라기 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보다 총체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네트워크 특성을 지니고 있다(권장원, 2005, p.109).

3) 제주지역 연고주의의 특성

제주는 고려 말(1105년)까지 약 천년동안 탐라국(耽羅國)이라는 독자적인 역사를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조선의 강력한 교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독특한 섬문화는 생활 전반에 걸쳐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제주지역의 연고주의 역시 고유한 섬문화에서 탄생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연고주의가 과거 유교에서 강조한 가족주의적 가치관, 즉 ‘효(孝)’사상에 입각한 가부장적 집단중심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반면, 제주지역은 친척과 외척, 처가의 관계가 상호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공동체적 가치관에서 연고주의가 발원했다고 볼 수 있다.

(1)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켄당[眷黨]’

제주에서는 친척을 나타내는 켄당[眷黨]이라는 말이 있다. 켄당은 육지의 친족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부계혈족의 친족과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 모두를 포함하는 가장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아버지쪽 친족이면 성켄당[父系親], 어머니쪽 친족은 외켄당[外戚], 남자가 결혼해서 생긴 처가쪽은 처켄당[妻族], 여자가 시집을 가서 맺어진 친족은 시켄당[媿家]이라고 구분해서 쓴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경우 같은 마을 안에서 사는 주민 대다수가 이름만 다를 뿐 서로 ‘켄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오랜 촌락내혼(村落內婚)의 관습으로 인한 것으로, 같은 마을 안에서도 친척과 사돈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마을 내혼에 따른 혼인망으로, 지연과 혈연에 중복이 생김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돈에 팔촌으로 걸린 켄당’이란 말을 곧잘 사용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고향마을을 밝히고 친척관계를 따지다보면 어디서 어떻게 얽혀졌든 사돈의 팔촌이라도 될 것이라는 뜻이다(김혜숙, 1993, p.408).

이와 같은 통혼권과 혼인망의 형성은 곧 마을 내 친척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나 사회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육지지방의 경우 여성이 혼인을 하면서 타 지역으로 혼출해 나가고, 타 지역의 여성이 혼입해 들어오는 것과 달리 제주지역은 같은 마을 안에서 혼인이 이루어져 친척과 외척, 사돈이 모두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은 친인척에 대한 구분을 굳이 두지 않고 하나의 '웬당'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는 곧 마을 내외 집안끼리나 인근 촌락과의 연맹이 가능해져 공동체의 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웬당'에 대한 호칭에서도 나타난다. 제주에서는 친척에 대한 지칭이나 호칭에서 세대별 구별만이 뚜렷할 뿐 친족용어가 비교적 단순하다. 특히 부모세대에서는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백숙부모(伯叔父母), 고모(姑母), 고모부(姑母夫) 그리고 사촌 이상의 형제들인 숙항(중숙, 재중숙, 삼중숙)은 모두 '삼촌[三寸]'으로 통칭한다. 즉 부모세대의 모든 친족원들을 성별이나 촌수에 관계없이 삼촌으로 칭하는 것이다. 이는 가능하면 친족원의 분류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삼촌(삼촌)'의 의미는 숫자상으로는 3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개념이다. 촌수를 따진다면 5촌이나, 7촌으로 간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아버지의 형제와 똑같이 삼촌만큼 가깝다는 뜻이다. 굳이 따져서 먼 촌수로 구별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식의 반영이다.

뿐만 아니라 촌수를 알 수 없는 친척이거나, 설사 친척이 아니더라도 동네사람으로서 그냥 성님이라고 부르기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에게는 '삼촌'이라고 부른다. 남녀에 따른 구별이 없지만 남자삼촌을 가리키는 것인지, 여자삼촌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될 상황에서만 남성에게는 '소나이삼촌(남자삼촌)', 여성에게는 '예펜삼촌(여자삼촌)'이라 하여 성별만 나타낼 뿐이다(김혜숙, 1993, p.420-421).

이렇듯 제주지역의 전통적 마을 구성원은 부계혈족의 폐쇄적이고 좁은 집단만을 고집하기보다 친척과 인척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폭넓은 웬당의 범주를 형성한다. 나아가 마을 내의 모든 사람이 친척이 아니더라도 동네어른에게는 모두 삼촌으로 호칭하면서 동네사람 모두를 하나의 웬당처럼 여기는 강한 지역 공동체의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친척과 외척을 구분하지 않는 개방적이고 강한 공동체 의식은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의 결과라 여겨진다(김혜숙, 2008, p.373).

(2) 제주의 연고주의, '켄당문화'

1950년대 이후 교통의 발달 등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촌락내혼의 관습은 점차 사라져갔다. 하지만 오랜 세월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제주지역 공동체의식은 '켄당문화'라는 새로운 연고주의로 제주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김태일(2007)은 제주지역 인간관계에 있어 형성된 독특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켄당문화'라고 지칭하면서, 제주지역 선거와 경조사에서 켄당문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제주지역 선거에 있어 당락의 변수는 '켄당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경조사 역시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많은 하객과 조문객들이 참석하는 '켄당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켄당문화는 넓게는 제주지역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좁게는 집안의 경조사 등에 있어서 '보이지 않은 힘', '보이지 않는 조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켄당문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해관계가 놓여있는 사항인 경우,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더 나아가 친인척관계로 맺어지는 켄당문화가 새로운 형태의 켄당문화, 즉 단순한 이해 집단적 관계의 인적 네트워크로 변질되어 가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나 않은지 우리들이 경계하여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²⁸⁾.

김태일(2007)은 켄당문화의 새로운 형태를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토착적인 켄당관계, 그리고 단순히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이해적 관계의 켄당으로 구분하였다. 토착적인 켄당은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성장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으로 맺어진 온 집단으로, 자연스럽게 집단화된 '보이지 않는 힘(조직)'이다. 또한 단순히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이해적 관계의 켄당은 학연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토착적인 켄당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협력관계를 맺으며 상호이해를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보이지 않는 힘(조직)'이다.

김희정·최낙진(2005)은 제주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서만 보이는 축하광고를 'A형 광고'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제주도의 '켄당'이라는 문화적 전통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제주 A형 광고가 갖는 저널리즘적 가치는 첫째 A형 광고를 통해 지역신문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둘째 충성스러

28) 김태일, 『제주의 켄당문화와 건축문화에 대한 비판』, <건축 제51권 제9호>, 2007, pp.65~66

운 독자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셋째 소액 개인광고주라는 안정적인 광고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아직까지 제주지역의 독특한 연고주의인 켤당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촌락내혼으로 형성된 연고주의는 혈연과 지연을 매개로한 반면 ‘켤당문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고주의는 혈연과 지연 외에도 학연과 이해집단 등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고주의의 외연(外延)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언론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1) 언론과 연고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

한국 사회에서의 연고 중심의 사회적 연결망 분석은 주로 정치, 경제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심층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조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선업, 1992; 김현주, 1993; 박승관, 1994; 임영호, 200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소수집단이 지연, 학연, 혈연 등 사적 연고주의를 매개로 제도나 공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제·장악하면서 이를 사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매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정치, 권력 등 부분적 차원에서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즉 연고주의에 대한 경향과 폐해에 대해 언론 내부 조직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실증적 데이터 확보 등 다각도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권장원, 2006, p.839).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 중심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박동숙·조연하·홍주현(2002)은 출입처에서의 취재원과 기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 기자와 취재원간의 연고가 언론사의 유용한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즉 언론사에서 출입처 기사를 배정할 때 취재원과의 학연, 지연 등을 고려해 이뤄지

29) 김희정·최낙진, 『제주 A형 광고의 저널리즘적 가치에 대한 함의-제주지역신문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제66호>, 2005, pp.59-77

고, 또 연고가 없더라도 사적 친분 고리를 형성하면서 기자와 취재원은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다³⁰⁾.

특히 권장원(2004; 2005)은 정계 인사와 언론인간의 연고를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언론사(조선·중앙·동아일보, 한겨레신문, KBS, MBC, SBS) 이사진과 부장급 이상 실무진의 연고에 따른 분포와 밀도, 위치 분석을 연구하였다³¹⁾.

또 제5공화국에서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각 정권에 따른 방송 정책 결정진과 정책 위원진 간의 상호 연결 가능성에 대한 위치적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분석 결과, 특히 공식적 차원에서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메이저 신문사의 경우 연고를 중심으로 상호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고를 매개로 상호 담합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언론의 권력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정서적 조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³²⁾.

김사승(2004)은 9개 중앙일간지의 전문기자, 일반기자, 간부 등 26명의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문기자의 취재보도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뉴스 생산함에 있어 사회적 파워 엘리트들과의 연결이나 관계를 뉴스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이완수(2006)도 국내 일간지(중앙일보)가 인물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적 또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관계나 정치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 어떻게 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인물 뉴스 생산에 있어 게이트키퍼들은 사회적 상류층이나 엘리트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사적 연결망이 인물 뉴스 결정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혀냈다³⁴⁾.

30) 박동숙·조연하·홍주현,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한국언론학보, 45-특별호, 2002, pp.367-396

31) 권장원, 『한국 언론사의 관계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연고에 의한 사적 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2004, pp.164-186,

32) 권장원, <한국방송정책에서의 비공식 네트워크 구조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5

33) 김사승, 『전문기자의 전문성과 뉴스의 질을 구축하는 취재보도 관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충원경로에 따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2004, pp.56-78.

34) 이완수, 『인물뉴스의 특성과 결정요인 연구-사회자본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2권, 2006, pp.1-46.

<표 2-1> 언론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관한 국내 연구 논문

저자	논문명	주요내용	연도
박동숙 조연하 홍주현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출입처에서의 취재원과 기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분석	2002
권장원	한국 언론사의 관계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연고에 대한 사적 신뢰요인을 중심으로	정계 인사와 언론인간의 연고를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 실증 분석	2004
김사승	전문기자의 전문성과 뉴스의 질을 구축하는 취재보도 관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충원경로에 따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기자의 취재보도 행태에 있어서 사회적 파워 엘리트들과의 관계 실증 분석	2004
이완수	인물뉴스의 특성과 결정요인 연구-사회자본 이론을 중심으로	인물뉴스 생산에 미치는 연고주의 등 사적,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관계 실증 분석	2006

이들 논의는 언론조직에 있어 연고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정치권 등 외부 권력과 연계한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접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언론조직 내부 구성원의 연고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도라든지, 또 조직 구성원의 연고가 실제 뉴스의 게이트키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나마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1989년 이래 2년마다 ‘언론인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뉴스 게이트키퍼 과정에 미치는 연고주의에 대한 언론인들의 영향 정도를 부분적이거나 가늠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전국의 언론인 9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자들이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데스크를 포함한 회사 상사’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 54.4%,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21.7% 등 76.1%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회사 상사에 이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뉴스 취재원(70.1%)’, 이어서 ‘동료 기자(48.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직장으로 인한 연고가 중요한 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친구나 친지’의 경우는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 13%,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0.3% 등 13.3%만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해, 직연에 비해 혈연, 지연, 학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각 요인들이 뉴스 가치 판단에 미치는 정도 (단위: %) (평균치 5점 기준)

	전혀 미치지 않음	별로 미치지 않음	보통이다	대체로 미침	매우 미침	모름/무응답	평 균
뉴스 취재원	1.5	5.0	22.9	55.7	14.4	0.4	3.77
상사(데스크 등)	0.8	5.1	17.8	54.4	21.7	0.3	3.91
경쟁관계 언론사	2.1	12.8	36.8	42.0	6.0	0.3	3.37
동료 기자	2.5	11.4	37.0	46.1	2.6	0.3	3.35
저널리즘 재교육	9.3	24.0	39.3	23.9	3.2	0.3	2.88
대학에서의 교육	10.7	34.0	37.6	16.5	0.9	0.3	2.63
친구나 친지	11.5	36.2	38.6	13.0	0.3	0.4	2.54

※ 출처 : <한국의 언론인 2007>, 한국언론재단, 2007, p. 83

뉴스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속 매체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중앙 일간지와 경제지 기자들의 경우 영향 정도를 5점 만점의 평균으로 환산하면 ‘데스크 등 상사’의 영향은 각각 4.0과 3.9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표 2-2> 참조). 지방 일간지의 경우는 다른 매체에 비해 ‘친구나 친지’의 영향(2.71)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중앙 방송사와 지방 방송사 기자의 경우는 다른 매체의 기자에 비해 ‘뉴스 취재원’의 영향(각각 3.83과 4.0)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2-3> 각 요인들이 뉴스 가치 판단에 미치는 정도 -소속매체별 (단위:5점 기준)

	뉴스 취재원	상사 (데스크)	경쟁 언론사	동료 기자	재교육	대학교육	친구나 친지
중앙 일간지	3.76	4.00	3.42	3.32	2.77	2.67	2.44
경 제 지	3.79	3.97	3.54	3.45	2.60	2.52	2.39
지방 일간지	3.68	3.85	3.23	3.30	3.12	2.66	2.71
중앙 방송사	3.83	3.92	3.35	3.40	2.67	2.61	2.57
지방 방송사	4.00	3.73	3.47	3.43	3.14	2.61	2.63

※ 출처 : <한국의 언론인 2007>, 한국언론재단, 2007, p. 84

한국언론재단의 조사 결과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즉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언론사 모두 개인적 차원의 연고보다는 조직적 차원의 연고, 특히 직연(職緣)의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 일간지에 비해 지방 일간지의 경우는 친구나 친지 등 혈연, 지연, 학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임영호·박소라·김은미(2004)는 한국 일간지 언론인의 커리어(career) 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중앙지의 경우 출신대학이나 첫 경력부서에 따라 훗날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지방지에서는 출신학교 소재지와 같은 전통적인 연고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이 연구는 뉴스 통제 요인으로서의 연고의 영향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하나마 중앙과 지방 언론사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언론사의 전통적인 연고 네트워크의 요소로서 학연(學緣)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2) 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

지역 언론과 관련한 연고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는 중앙언론에 비해 더욱 부족한 현실이다. 홍성구(1996)는 강원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지방뉴스 변화에 작용한 권력구조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역 언론이 구조적으로 지배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지방뉴스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지역자치단체는 지역 언론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원, 광고주, 신문의 소비자로서 기능하는 지역 언론의 특수성이 또한 뉴스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지역적 특수성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공동체적 연줄망(학연, 지연 등)과 영동·영서의 지역감정 등이 뉴스구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³⁶⁾.

송인호(2001)는 전북지역 10개 언론사의 보도·편집국 데스크들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과정에 나타나는 특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가, 특히 학연이 전북지역 언론인의 게이트키퍼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방송사의 경우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한 영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굳이 꼽는다면 학연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신문사의 경우는 대부분 학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³⁷⁾.

35) 임영호·김은미·박소라, 『한국 일간지 언론인의 커리어 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2004, pp.61-89.

36) 홍성구,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뉴스만들기: 지역언론의 뉴스틀 형성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임근(2005)은 중앙일간지 지방판(호남·제주면)에 게이트키퍼 과정에 나타나는 지방 주재기자와 데스크들의 통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사 선택과 작성에 있어 광고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광고국 직원에 의한 요청이 올 경우 가급적 보도를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혈연, 지연, 학연 등 아는 사람이 기사 게재 요청을 할 경우 광고와 달리 대부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데스크보다 취재기자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취재기자의 경우 대부분 조직의 논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스크와 갈등이 있거나 개인적 의견이 회사의 의견과 상충되더라도 신문 논조의 일관성을 위해 데스크나 회사의 입장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다³⁸⁾.

이들 논의 역시 대부분 기존에 연구가 미흡했던 지역언론인들의 취재보도 행태, 특히 언론인과 지역 내 외부 권력의 관계 등에 대한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접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언론과 연고주의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가 미치는 영향 정도나 연고주의에 대한 지역 언론인들의 인식도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 못하였다.

<표 2-4> 언론 통제요인으로서 지역 연고주의에 관한 국내 연구 논문

저자	논문명	주요내용	연도
홍성구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뉴스만들기	뉴스 변화에 작용한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 분석	1996
송인호	지역언론 게이트키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언론 데스크의 게이트키퍼에 관한 특성 분석	2001
임영호 박소라 김은미	한국 일간지 언론인의 커리어 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지/지방지 언론인의 조직 내 커리어 이동에 작용하는 요인 분석	2004
박임근	중앙일간지 지역면 게이트키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 주재기자와 호남·제주면 데스크를 중심으로	중앙일간지 지역 주재기자와 데스크의 게이트키퍼에 관한 특성 분석	2005

37) 송인호, 『지역언론 게이트키퍼의 특성에 관한 연구-지역 언론사 데스크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8) 박임근, 『중앙일간지 지역면 게이트키퍼의 특성에 관한 연구-전북 주재기자와 호남·제주면 데스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Ⅲ. 연구문제 및 연구설계

1.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의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대한 연구는 사회구조적인 관점 내지는 보도 관행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연고주의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언론사 모두 개인적 차원의 연고보다는 조직적 차원의 연고, 특히 직연(職緣)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 언론사에 비해 지방 언론사의 경우는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차원의 연고주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연구는 언론보도에 있어 게이트키퍼의 행위주체의 언론인의 연고로 중심으로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보다는 게이트키퍼 과정에 미치는 여러 통제 요인들을 분석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요인으로서 연고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의 연구결과들이 제주지역 언론보도에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지역 역시 섬 고유의 공동체문화로 인한 연고주의 성향은 지역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인 언론사 기자와 데스크들 역시 이러한 연고주의의 영향력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연고주의가 통제 요인으로서 실제 기사 선택과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지역 언론인들의 가치관과 경험 등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제주지역 언론사들의 뉴스 생산에 있어 연고주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혈연·지연·학연 등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언론사 소유주나 경영진, 직장 동료·상사, 시청자위원·독자위원 등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살펴봄으로써 지역 언론보도와 연고주의의 상관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같은 지역 언론이라 할지라도 매체 운영방식과 인력 운용면에서 차이가 있는 지역 방송사와 지역 신문사간의 비교분석 통하여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방송과 신문이라는 매체별 지역 언론의 보도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 있어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근무 경력, 조직 내 지위, 출신지 등에 다른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연고주의가 지역 언론보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연고주의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연고주의 역시 그 지역 공동체문화와 내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연고주의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역 언론보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1, 2, 3을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뉴스 생산에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 즉 연고주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중앙 언론에 비해 지역 언론 보도의 경우는 학연 등 사적 연고주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와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를 구분하여, 이들이 실제 제주지역 언론보도의 게이트키퍼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기자의 출신지나 근무 경력, 조직 내 직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또한 직장 동료·상사, 경영진·주주, 시청자·독자위원, 언론계 동료·선배·단체 등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기자의 근무 경력, 조직 내 직위에 따라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2 :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은 방송사와 신문사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언론보도에 있어 방송 뉴스와 신문 보도는 매체 특성상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회사의 경영구조나 경영방식, 인적 구성, 뉴스의 생산과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신문사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 출신의 인물을 채용해 운영하는 반면 방송사의 경우는 타 지역 출신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매체 특성에서 오는 이런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은 충분히 연고주의에 대한 영향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매체별 다른 특성에서 오는 후천적인 변수도 있다. 즉 언론사의 경영방식이나 방침, 뉴스의 생산방식, 조직 내의 역할 등 언론사 내부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은 기자의 언론보도에 대한 가치관이나 정치적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실제 송인호(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송사 데스크의 경우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한 영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신문사 데스크의 경우는 대부분 학연 등 연고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³⁹⁾.

이에 따라 방송사와 신문사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언론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언론보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문제 3 : 뉴스생산의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기존 선행 연구에서 언론 보도에 미치는 연고주의의 영향은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연고주의는 지역 언론인들의 가치관과 경험 등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리라 생각된다. 즉 연고주의를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고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제주지역 언론인들의 인식은

39) 송인호, 앞의 논문, 2001, p.54

어떠한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조직적 수준의 연고에 대해 살펴봄은 물론 언론인들의 출신지와 근무 경력, 조직 내 직위에 따라 각각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서술형 답변을 통해 지역언론 보도에 있어 연고주의가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언론의 뉴스 생산과정과 지역언론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분석수준의 결정

언론학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언론사와 언론인을 하나의 통합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언론상황을 구성하는 데에 이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다. 또 하나는 언론사와 언론인을 개별적으로 파악해 언론 메시지를 구성하는데 있어 언론사와 언론인의 상대적인 영향력 및 자율성을 규명하는 연구이다(김정탁, 1991, p.191)

전자의 연구는 게이트키퍼 연구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즉 뉴스가 언론사 내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신문이나 방송에 반영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연구다. 이에 비해 후자의 연구는 언론사는 언론인에 대해 조직으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언론인은 언론사라는 조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획득하여 메시지를 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이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매우 드물게 연구됐고 그나마 언론인을 언론사에 종속된 개념으로 파악해 언론 메시지 제작에 있어 언론인의 상대적 자율성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⁴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지역언론인 개인의 인식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내적 통제요인으로서의 연고주의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수준 역시 지역언론인의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40) 송인호, 앞의 논문, 2001, p.34

이뤄지는 게이트키퍼 분석으로 한정하여, 통제요인으로서의 연고주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연고주의를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 조직적 차원의 연고주의를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

게이트키퍼가 뉴스가 생산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커뮤니케이터로서의 개인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행위주체이다. 현실 속의 사건을 발견하여 그것을 뉴스로 선정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개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논리이다⁴¹⁾.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선 출신 지역, 기자로서의 경력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지역언론의 경우는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연고지라는 명목으로 지연 혹은 학연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이트키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고주의의 대표적 유형인 혈연과 지연, 학연을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분석유목으로 정하고,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조직은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게이트키퍼 개인이 어떠한 사건을 기사화할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고용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조직이기 때문이다. 즉, 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데스크나 경영진, 소유주, 혹은 이웃 부서장 등 같은 조직 내의 연고 또는 조직 자체의 연고로 의해 기사가 생산, 선택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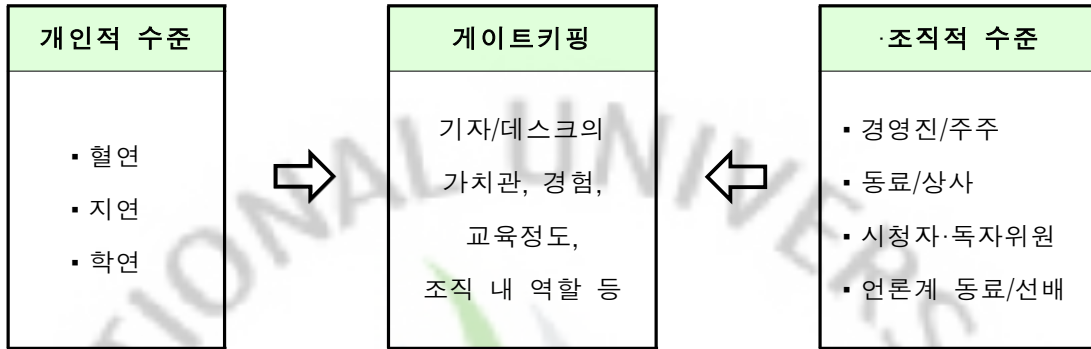
특히 지역 언론의 경우에는 중앙 언론과 비교해서 규모가 작고, 관료구조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에 의한 통제가 가중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분석유목을 조직 내 동료·상사, 경영진·주주, 시청자위원·독자위원, 언론계 동료·선배·단체 등으로 정하고,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

41) 최중수, 『한국신문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6, p.12.

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고주의에 대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그림 3-1]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연고주의에 관한 분석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자 선정

지역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의 채택 기준이나 기사 작성, 취재 방향 등 뉴스 생산과정에 미치는 연고주의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주지역 4개 방송사 -KBS제주총국, 제주MBC, 제주방송(JIBS), KCTV제주방송-과 제주지역 4개 일간지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등 모두 8개 지역언론사의 보도국·편집국 데스크를 비롯해 실제 뉴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취재기자 136명을 분석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제주지역 8개 언론사를 설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1개 방송사와 1개 신문사를 대상으로한 예비설문 조사결과 같은 조직, 같은 직위 내에서도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또 일부 직위에서는 표본추출 대상의 수가 너무 적어 표본으로서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전수조사(全數調査) 차원에서 분석대상을 확대하였다.

둘째는 타 지역에 비해 제주지역 언론사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에 제주지역 언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뉴스를 매일

생산하고 있는 TV방송사 4곳과 일간지 신문사 4곳 등 8개 언론사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3-1> 분석대상 언론사 현황(2008년 3월 현재)

언론사	회사형태	2007 매출액	2007 순이익	기사/광고 비율	시청자위원/독자위원 수	종사자 수	보도/편집국 기자·데스크 수 ^{*1)}
JBS	주식회사	144억원	38억원	-	15명	79명	11명
KBS제주	공공기관	-	-	-	14명	153명	13명
제주MBC	주식회사	197억	- 2,355만원	-	15명	92명	12명
KCTV	주식회사	89억원	5,837만원	-	10명	73명	10명
제주일보	주식회사	110억원	- 9억원	-	없음	92명	29명
한라일보	주식회사	-	-	-	24명	67명	26명
제민일보	주식회사	36억원	4,322만원	기사 60%, 광고 40%	21명	60명	27명
제주타임스	주식회사	7억원	843만원	기사 75%, 광고 25%	5명	26명	8명

*1) 보도·편집국 전체 기자 가운데 실제 뉴스 게이트키퍼에 참여하는 인원 수

※ 출처 : <2008 한국신문방송연감>, 한국언론재단, 2008.

2) 자료수집

(1)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은 분석대상자 모두에게 연구자가 제시한 질문지를 직접 기록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구두면접 방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과 정확하지 않은 의사전달을 사전에 방지하여 필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고주의의 인식도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설문지의 마지막 문항은 서술형 답변으로 수집하였다.

(2) 질문지의 작성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개인적 수준의 질문과 조직적 수준의 질문들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의 문제 타당도와 설문응답자의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008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방송사 기자 8명, 신문사 기자 9명 등 모두 17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는 통계처리를 위한 개인신상 질문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고, 짧은 시간 내 답하기에는 질문문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다. 예비설문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배제하였고, 또 전체 문항 수도 줄여 본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질문지는 언론통계에 관련한 기존 문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텔레비전 뉴스 통제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유정아(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와, 언론의 보도자료 이용과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남효운(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지역언론 게이트키퍼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송인호(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침도 참고하였다.

(3) 자료수집 실행

앞서 준비한 질문지를 가지고 연구자가 직접 8개 언론사를 방문해 보도국장과 편집국장을 통해 질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체 대상자 136명 가운데 회수된 질문지는 99부로, 72.8%의 회수율을 보였다. 분석자료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3부를 제외한 총 96명의 설문지가 최종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언론인에 대한 전수조사(census)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3-2>와 같다.

<표 3-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대상자 수	백분율
언론사	방송사	37	39.2%
	신문사	59	61.8%
	계	96	100%
근무년수	5년 이하	27	27.8%
	6 - 10년	28	29.9%

	11 - 15년	18	19.6%
	16년 이상	23	22.7%
	계	96	100%
직 위	사원	49	50.5%
	차장	22	22.7%
	부장(팀장)	12	13.4%
	취재·편집부장	8	8.2%
	보도·편집국장	5	5.2%
	계	96	100%
출신지역	제주도내	86	90.7%
	제주도외	9	9.3%
	계	95	100%

3)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뉴스 게이트키퍼에 대한 연고주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전수조사(全數調査)로, 개인적·조직적 수준의 각 유형별 변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indows SPSS v12.0을 사용하여 집계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각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

○ 연구문제 1 :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1) 혈연(血緣)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혈연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 96명 가운데 절반인 48명(50%)이 혈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해, 혈연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16.7%)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5점 만점의 평균으로 환산하면 평균치는 2.53으로, 즉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혈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⁴²⁾.

<표 4-1> 기사 선택·작성에 미치는 혈연의 영향 정도 (평균치:5점기준)

	빈도	백분율(%)	평균 2.53 표준편차 0.93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3	13.5	
② 그렇지 않다	35	36.5	
③ 보통이다	32	33.3	
④ 그렇다	16	16.7	
⑤ 매우 그렇다	0	0	
합 계	83	100	

42)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혈연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 가운데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상당수는 혈연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표 4-1>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16명,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2명이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혈연’에 응답한 인원은 38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 32명 중 22명이 혈연의 영향을 받았던 경험자인 것이다.

게이트키퍼에 있어 응답자의 출신지역에 따른 혈연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제주 도내 출신 가운데 혈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47.1%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지방 출신의 응답자는 77.8%가 혈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해 지역 출신들보다 상대적으로 혈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언론사의 근무 경력에 따른 혈연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평균치는 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는 2.37, 근무 경력이 6~10년인 응답자의 경우는 2.46, 근무 경력이 11~15년인 경우는 2.61, 근무 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는 2.7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혈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 참조).

<표 4-2> 근무경력·조직 내 직위에 따른 혈연의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근무 경력	5년 이하	22.2%	37.0%	22.2%	18.5%	0%	2.37	1.04
	6~10년	10.7%	42.9%	35.7%	10.7%	0%	2.46	0.84
	11~15년	5.6%	44.4%	33.3%	16.7%	0%	2.61	0.85
	16년 이상	13.0%	21.7%	43.5%	21.7%	0%	2.74	0.96
조직 내 직위	사원	14.3%	44.9%	24.5%	16.3%	0%	2.43	0.94
	차장	18.2%	31.8%	40.9%	9.1%	0%	2.41	0.91
	부장(팀장)	0%	33.3%	58.3%	8.3%	0%	2.75	0.62
	취재·편집부장	12.5%	12.5%	12.5%	62.5%	0%	3.25	1.17
	보도·편집국장	20.0%	20.0%	60.0%	0%	0%	2.40	0.89

조직 내 직위에 따른 혈연의 영향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직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특이한 점은 실질적인 데스크를 맡고 있는 취재·편집 부장들인 경우 평균치는 3.25로, 다른 직위에 비해 오히려 혈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표준편차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취재·편집부장들인 경우는 다른 그룹에 비해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게이트키퍼에 있어, 혈연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자 38명 가운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연고를 조사하였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혈연은 ‘친가(68.4%) > 기타(15.8%) > 처가/시가(13.2%) > 외가(2.6%)’ 순으로 나타났다. 혈연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연고에 대해 근무 경력에 따른 차이와 조직 내 직위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지연(地緣)

두 번째로 게이트키퍼 과정에 미치는 지연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96명 가운데 51명(53.2%)이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지연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8명(8.3%)으로 나타나, 지연의 영향을 받는 사람보다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즉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분석대상 기자들의 절반 이상은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 기사 선택·작성에 미치는 지연의 영향 정도 (평균치:5점기준)

	빈도	백분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3	13.6	평균 2.42 표준편차 0.83
② 그렇지 않다	38	39.6	
③ 보통이다	37	38.5	
④ 그렇다	8	8.3	
⑤ 매우 그렇다	0	0	
합 계	96	86.4	

출신지역에 따른 지연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내 출신 가운데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48.2%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지방 출신의 응답자는 9명 전원이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또한 언론사의 근무 경력에 따른 지연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지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평균치의 경우, 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응답자는 2.11로 가장 지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근무 경력이 6~10년인 응답자는 2.39, 근무 경력이 11~15년인 경우는 2.50, 근무 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는 2.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혈연의 영향 정도와 마찬가지로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지연의 영향 역시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근무 경력·조직 내 직위에 따른 지연의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근무 경력	5년 이하	22.2%	51.9%	18.5%	7.4%	0%	2.11	0.85
	6~10년	10.7%	46.4%	35.7%	7.1%	0%	2.39	0.79
	11~15년	11.1%	38.9%	38.9%	11.1%	0%	2.50	0.86
	16년 이상	8.7%	17.4%	65.2%	8.7%	0%	2.74	0.75
조직 내 직위	사원	14.3%	53.1%	26.5%	6.1%	0%	2.24	0.78
	차장	18.2%	31.8%	45.5%	4.5%	0%	2.36	0.85
	부장(팀장)	8.3%	16.7%	66.7%	8.3%	0%	2.75	0.75
	취재·편집부장	12.5%	25.0%	37.5%	25.0%	0%	2.75	1.04
	보도·편집국장	0%	20.0%	60.0%	20.0%	0%	3.00	0.71

조직 내 직위에 따른 지연의 영향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도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평균치가 보도·편집국장의 경우 3.00으로 가장 높고, 취재·편집부장과 부장들의 경우는 2.75, 차장의 경우는 2.36, 그리고 사원들의 경우는 2.24로 가장 낮게 나왔다. 즉 조직 내 직위가 낮을수록 지연의 영향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기사 선택과 작성에 있어 지연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자 43명 가운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연고를 조사하였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지연은 ‘읍/면/동(41.9%) > 시/군(23.3%) > 리(20.9%) > 광역시/도(13.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연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연고에 대해 근무 경력에 따른 차이와 조직 내 직위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학연(學緣)

개인적 연고주의의 분석 유목 중 세 번째로, 게이트키퍼 과정에 미치는 학연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96명 가운데 63명(65.6%)이 학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학연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명(7.3%)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50%)과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53.2%)에 비해, 학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응답비율(65.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분석대상 기자들은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학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 기사 선택·작성에 미치는 학연의 영향 정도 (평균치:5점기준)

	빈도	백분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0	20.8	평균 2.21
② 그렇지 않다	43	44.8	
③ 보통이다	26	27.1	
④ 그렇다	7	7.3	표준편차 0.86
⑤ 매우 그렇다	0	0	
합 계	76	100	

전체 응답자 96명 가운데 타 지역 출신은 9명(9.4%)에 불과했다. 출신지역에 따른 학연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내 출신 가운데 ‘학연의 영향을 받거나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8%, 학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62%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도의 출신은 100%가 학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즉 제주지역 출신 기자들은 상당수 학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 지역 출신에 비해서는 다소 학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론사의 근무 경력에 따른 학연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의 응답자 대부분(81%)이 학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평균치가 근무 경력 5년 이하인 응답자는 1.89, 근무 경력이 6~10년인 응답자는 2.21, 근무 경력이 11~15년인 경우는 2.33, 근무 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는 2.48로 나타났다. 즉 학연 역시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영향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조직 내 직위에 따른 학연의 영향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혈연의 영향 정도와 마찬가지로, 취재·편집부장인 경우 평균치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직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연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나 취재·편집부장인 경우 상대

적으로 다른 그룹과는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4-6> 근무 경력·조직 내 직위에 따른 학연의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근무 경력	5년 이하	40.7%	40.7%	7.4%	11.1%	0%	1.89	0.97
	6~10년	14.3%	50.0%	35.7%	0%	0%	2.21	0.69
	11~15년	16.7%	44.4%	27.8%	11.1%	0%	2.33	0.91
	16년 이상	8.7%	43.5%	39.1%	8.7%	0%	2.48	0.79
조직 내 직위	사원	26.5%	53.1%	14.3%	6.1%	0%	2.00	0.82
	차장	18.2%	36.4%	40.9%	4.5%	0%	2.32	0.84
	부장(팀장)	16.7%	41.7%	41.7%	0%	0%	2.25	0.75
	취재·편집부장	12.5%	25.0%	25.0%	37.5%	0%	2.88	1.13
	보도·편집국장	0%	40.0%	60.0%	0%	0%	2.60	0.55

또 게이트키퍼에 있어 학연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자 30명 가운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연고(緣故)를 조사하였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학연은 ‘고등학교(66.7%) > 대학교(16.7%) > 초등학교(13.3%) > 중학교(3.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연고에 대해 근무 경력에 따른 차이와 조직 내 직위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양상(樣相)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연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혈연, 지연, 학연 모두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세 가지 분석유목 가운데 혈연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혈연(34.4%) > 학연(31.2%) > 지연(24.6%) > 기타(9.8%)’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언론보도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6.3%로, 영향을 받는다(10.7%)는 응답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즉 제주지역 기자들은 기사 선택과 작성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로 인한 영향은 대체적으로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7> 언론보도에 미치는 개인적 수준 연고의 영향 정도

	혈연	지연	학연	빈도	백분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3	13	20	46	16.0	평균 2.38 표준오차 0.92
② 그렇지 않다	35	38	43	116	40.3	
③ 보통이다	32	37	26	95	33.0	
④ 그렇다	16	8	7	31	10.7	
⑤ 매우 그렇다	0	0	0	0	0	
합 계	83	96	76	288	100	

그런데 언론사의 근무 경력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개인적 연고를 분석한 결과, 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응답자들의 경우는 학연과 지연, 혈연에 있어 큰 편차 없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는 52.9%가 혈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이는 조직 내 직위에 따른 개인적 연고주의의 영향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4-8>에서 알 수 있듯이 차장 이상 간부급 사원들의 경우는 학연(35.5%)과 지연(29%)의 영향에 비해 혈연(22.5%)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반면, 사원의 경우는 혈연(46.7%)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근무 경력·조직 내 직위에 따른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적 연고

		학연	지연	혈연	기타	전체
근무 경력	5년이하	23.5%	23.5%	52.9%	0%	100%
	6~10년	41.2%	17.6%	29.4%	11.8%	100%
	11~15년	27.3%	36.4%	18.2%	18.2%	100%
	16년이상	31.3%	25.0%	31.3%	12.5%	100%
조직 내 직위	사원	26.7	20.0	46.7	6.7	100
	차장	36.4	36.4	9.1	18.2	100
	부장(팀장)	40.0	10.0	40.0	10.0	100
	취재·편집부장	33.3	33.3	16.7	16.7	100
	보도·편집국장	25.0	50.0	25.0	0	100

2)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1) 직장 동료·상사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소속된 직장의 동료 및 상사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소속된 언론사의 동료나 상사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96명 가운데 20명(20.8%)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30명(31.4%)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기자들은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직장 동료·상사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받는 기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기사 선택·작성에 미치는 직장 동료·상사의 영향 정도

	빈도	백분율(%)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4.1	평균 3.11 표준편차 0.89
④ 그렇지 않다	16	16.7	
③ 보통이다	46	47.9	
② 그렇다	25	26.1	
① 매우 그렇다	5	5.2	
합 계	96	100	

언론사의 근무 경력에 따른 직장 동료·상사와의 연고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는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33.3%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29.6%)보다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근무 경력이 6~10년인 응답자의 경우 직장 동료·상사의 연고에 영향을 받는 비율은 39.3%, 영향을 받지 않는 비율(14.3%)보다 훨씬 높았다. 근무 경력이 11~15년인 경우도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44.4%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16.7%)보다 훨씬 높았다. 근무 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21.7%로, 오히려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8.7%)보다 훨씬 많았다.

따라서 근무 경력 5년 이하의 응답자와 근무 경력 16년 이상의 응답자들의 경우 직장 동료·상사의 연고에 인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반면, 근무 경력 6년~15년 사이의 중간 사원들인 경우는 직장 동료·상사의 연고에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 근무경력·조직 내 직위에 따른 동료·상사로 인한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근무 경력	5년 이하	11.1%	18.5%	37.0%	29.6%	3.7%	2.96	1.05
	6~10년	3.6%	10.7%	46.4%	32.1%	7.1%	3.29	0.90
	11~15년	0%	16.7%	38.9%	33.3%	11.1%	3.39	0.92
	16년 이상	0%	21.7%	69.6%	8.7%	0%	2.87	0.55
조직 내 직위	사원	6.1%	12.2%	42.9%	34.7%	4.1%	3.18	0.93
	차장	4.5%	22.7%	54.5%	13.6%	4.5%	2.91	0.87
	부장(팀장)	0%	16.7%	58.3%	16.7%	8.3%	3.17	0.83
	취재·편집부장	0%	37.5%	12.5%	37.5%	12.5%	3.25	1.16
	보도·편집국장	0%	0%	100%	0%	0%	3.00	0

또 조직 내 직위에 따른 직장 동료·상사의 연고에 대한 영향력 분석에서는 근무경력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표 4-10>에서와 같이 보도·편집국장의 경우는 5명 전원이 '보통이다'라고 답해 직장 동료·상사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에 대해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위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영향을 받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영진·주주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두 번째 분석유목은 언론사의 경영진과 주주와의 연고이다.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소속 언론사의 경영진이나 주주 등과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96명 가운데 28명(29.2%)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32명(33.3%)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기자들은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경영진·주주 등의 연고로 인한 영향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1> 기사 선택·작성에 미치는 경영진·주주의 영향 정도 (평균치:5점기준)

	빈도	백분율(%)	평균 3.03
① 전혀 그렇지 않다	6	6.3	
② 그렇지 않다	22	22.9	
③ 보통이다	36	37.5	
④ 그렇다	27	28.1	표준편차 0.99
⑤ 매우 그렇다	5	5.2	
합 계	96	100	

언론사의 근무 경력에 따른 경영진·주주 등과의 연고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40%로, ‘영향을 받는다(37%)’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표 4-12> 참조). 근무 경력이 6~10년인 응답자의 경우 경영진·주주 등의 연고에 영향을 받는 비율은 39.3%로, 다른 그룹들보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근무 경력이 11~15년인 경우는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44.4%)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16.7%)보다 훨씬 많았다.

근무 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0.9%로 훨씬 높게 나타나 중간자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근무 경력이 10년 이하인 사원의 경우는 표준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경영진·주주 등과의 연고에 대한 영향 정도는 비교적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근무경력·조직 내 직위에 따른 경영진·주주로 인한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근무 경력	5년 이하	11.1%	29.6%	22.2%	33.3%	3.7%	2.89	1.12
	6~10년	7.1%	21.4%	32.1%	32.1%	7.1%	3.11	1.07
	11~15년	0%	16.7%	38.9%	33.3%	11.1%	3.39	0.92
	16년 이상	4.3%	21.7%	60.9%	13.0%	0%	2.83	0.72
조직 내 직위	사원	8.2%	26.5%	24.5%	36.7%	4.1%	3.02	1.07
	차장	4.5%	22.7%	40.9%	27.3%	4.5%	3.05	0.95
	부장(팀장)	0%	8.3%	75.0%	8.3%	8.3%	3.17	0.72
	취재·편집부장	12.5%	25.0%	25.0%	25.0%	12.5%	3.00	1.31
	보도·편집국장	0%	20.0%	80.0%	0%	0%	2.80	0.45

따라서 근무 경력 5년 이하의 응답자와 근무 경력 16년 이상의 응답자들의 경우

경영진·주주의 연고에 인한 영향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반면, 근무 경력 6년~15년 사이의 중간 사원들인 경우는 경영진·주주의 연고에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조직 내 직위에 따른 경영진·주주의 연고에 대한 영향력에서도 근무 경력에 따른 영향 정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보도·편집국장과 부장(팀장)의 경우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80.0%와 75.0%로 매우 높게 나타나 중간자적 입장이 비교적 강하였다. 반면에 취재·편집부장들의 경우는 영향을 받는 그룹과 영향을 받지 않는 그룹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다른 그룹과는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보도·편집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영진·주주와의 연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시청자위원·독자위원

세 번째로는 언론사가 공정보도를 위해 운영하는 시청자·독자위원회의 위원들과의 연고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다.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소속 언론사의 시청자위원이나 독자위원과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96명 가운데 26명(27.1%)이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35명(36.4%)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기자들은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시청자위원·독자위원의 연고로 인한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3> 기사 선택·작성에 미치는 시청자위원·독자위원의 영향 정도 (5점기준)

	빈도	백분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8	8.3	평균 2.84
② 그렇지 않다	27	28.1	
③ 보통이다	35	36.5	표준편차 0.97
④ 그렇다	24	25.0	
⑤ 매우 그렇다	2	2.1	
합 계	96	100	

언론사의 근무 경력에 따른 시청자위원·독자위원과의 연고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근무 경력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시청자위원·독자위원과의 연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응답이 많았다(<표 4-14> 참조). 근무 경력이 11~15년인 경우에만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치 3.06을 보여 시청자위원·독자위원과의 연고에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무 경력 11~15년인 중간 경력의 기자들의 경우에만 시청자위원·독자위원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받는 정도가 강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시청자·독자위원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 근무경력·조직 내 직위에 따른 시청자·독자위원으로 인한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근무 경력	5년 이하	11.1%	33.3%	22.2%	33.3%	0%	2.78	1.05
	6~10년	17.9%	25.0%	32.1%	21.4%	3.6%	2.68	1.12
	11~15년	0%	33.3%	33.3%	27.8%	5.6%	3.06	0.94
	16년 이상	0%	21.7%	60.9%	17.4%	0%	2.96	0.64
조직 내 직위	사원	10.2%	26.5%	26.5%	34.7%	2.0%	2.92	1.06
	차장	9.1%	36.4%	45.5%	9.1%	0%	2.55	0.80
	부장(팀장)	0%	16.7%	58.3%	16.7%	8.3%	3.17	0.83
	취재·편집부장	12.5%	50.0%	25.0%	12.5%	0%	2.37	0.92
	보도·편집국장	0%	0%	60.0%	40.0%	0%	3.40	0.55

또 조직 내 직위에 따른 시청자위원·독자위원과의 연고에 대한 영향력 분석에서도 근무경력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치를 보면, <표 4-14>에서와 같이 보도·편집국장과 부장의 경우 시청자위원·독자위원과의 연고에 대한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반면, 나머지 사원들의 경우는 대부분 시청자위원·독자위원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기자들은 다른 조직적 연고와 달리 시청자위원·독자위원의 연고로 인한 영향은 대체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질적인 데스크를 맡는 취재·편집부장의 경우는 분석대상 가운데 가장 적게 시청자위원·독자위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보도를 책임지는 보도·편집국장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4) 언론계 동료·선배·단체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네 번째 분석유목은 지역 내 언론계의 동료, 선배, 단체와의 연고이다.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같은 언론계의 동료, 선배, 단체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96명 가운데 22명(22.9%)이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27명(28.2%)으로 나타나, 반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7명(48.9%)으로 나타나 절반 가량이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언론계의 동료, 선배, 단체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당수가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5> 기사 선택·작성에 미치는 언론계 동료·선배·단체의 영향 정도 (5점기준)

	빈도	백분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4	4.2	평균 2.93
② 그렇지 않다	23	24.0	
③ 보통이다	47	48.9	표준편차 0.84
④ 그렇다	20	20.8	
⑤ 매우 그렇다	2	2.1	
합 계	96	100	

언론사의 근무 경력에 따른 같은 언론계의 동료, 선배, 단체와의 연고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근무 경력이 11~15년인 경우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3.11을 나타내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4-16> 참조).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근무 경력에 상관없이 언론계의 동료, 선배, 단체와의 연고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응답으로 중간자적 입장이 훨씬 많았다.

또 조직 내 직위에 따른 언론계의 동료, 선배, 단체와의 연고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에서 역시 중간자적 입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보도·편집국장의 경우는 80%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다른 그룹들에 비해 가장 중간자적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 4-16> 근무경력에 따른 언론계 동료·선배·단체의 연고로 인한 영향 정도 (5점기준)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근무 경력	5년 이하	11.1%	25.9%	40.7%	22.2%	0%	2.74	0.94
	6~10년	3.6%	25.0%	46.4%	21.4%	3.6%	2.96	0.89
	11~15년	0%	27.8%	38.9%	27.8%	5.6%	3.11	0.90
	16년 이상	0%	17.4%	69.6%	13.0%	0%	2.96	0.56
조직 내 직위	사원	6.1%	22.4%	42.9%	26.5%	2.0%	2.96	0.91
	차장	4.5%	31.8%	50.0%	13.6%	0%	2.73	0.77
	부장(팀장)	0%	16.7%	66.7%	8.3%	8.3%	3.09	0.79
	취재·편집부장	0%	37.5%	37.5%	25.0%	0%	2.87	0.83
	보도·편집국장	0%	0%	80.0%	20.0%	0%	3.20	0.45

(5)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양상(樣相)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연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와는 달리 확연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네 가지 분석 유목 들을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직장의 동료·상사(48.2%) > 경영진·주주(28.2%) > 언론계 동료·선배·단체(15.4%) > 시청자위원·독자위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언론보도에 있어 직장의 동료·상사, 경영진·주주, 시청자위원·독자위원, 언론계 동료·선배·단체 등 조직적 수준의 연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28.7%)와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자(28.6%)의 비율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다만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평균치가 2.98로, 다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개인적 수준의 연고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치가 2.38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직적 수준의 연고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사 선택과 작성에 있어 이러한 조직적 연고주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개인적 연고주의의 양상과는 그 영향 정도에 있어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라 하겠다.

<표 4-17> 언론보도에 미치는 조직적 수준 연고의 영향 정도 (평균치:5점기준)

	직장 동료/상사	경영진/주주	시청자위원/독자위원	언론계 동료/선배/단체	빈도	백분율 (%)	평균 2.98 표준편차 0.9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4	6	8	4	22	5.7	
② 그렇지 않다	16	22	27	23	88	22.9	
③ 보통이다	46	36	35	47	164	42.7	
④ 그렇다	25	27	24	20	96	25.1	
⑤ 매우 그렇다	5	5	2	2	14	3.6	
합계	96	96	96	96	384	100	

따라서 제주지역 기자들은 대부분 언론보도에 있어 직장의 동료·상사, 경영진·주주, 시청자위원·독자위원, 언론계 동료·선배·단체 등의 연고로 인한 영향 역시 일정 부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언론사의 근무 경력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조직적 연고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근무 경력이 1~15년인 응답자들의 경우는 직장의 동료 및 상사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54.7%)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근무 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는 경영진과 주주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38.1%)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8> 참조).

<표 4-18> 근무경력·조직 내 직위에 따른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조직적 연고

		직장 동료/상사	경영진/주주	시청자·독자 위원	언론계 동료/선배	전체
근무 경력	5년 이하	54.2%	25.0%	8.3%	12.5%	100%
	6~10년	58.3%	20.8%	8.3%	12.5%	100%
	11~15년	50.0%	31.3%	6.3%	12.5%	100%
	16년 이상	28.6%	38.1%	9.5%	23.8%	100%
조직 내 직위	사원	61.4	20.5	9.1	9.1	100
	차장	29.4	47.1	5.9	17.6	100
	부장(팀장)	50.0	41.7	0	8.3	100
	취재·편집부장	14.3	28.6	14.3	42.9	100
	보도·편집국장	40.0	0	20.0	40.0	100

그러나 조직 내 직위에 따른 조직적 연고주의의 영향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근무 경력에 따른 영향 정도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사원의 경우는 직

장 동료·상사(61.4%)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장과 부장(팀장)의 경우는 경영진·주주(각각 47.1%, 41.7%)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도·편집국장과 취재·편집부장들의 경우는 언론계 동료·선배·단체(각각 40.0%, 42.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

○ 연구문제 2 :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은 방송사와 신문사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1) 방송사와 신문사간의 인구통계학적 비교분석

언론보도에 있어 방송 뉴스와 신문 보도는 매체 특성상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회사의 경영구조나 경영방식, 인적 구성, 뉴스의 생산과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표 4-19>과 같이 지역신문사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 출신의 인물을 채용해 운영하는 반면 방송사의 경우는 타 지역 출신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매체 특성에서 오는 이런 요인들은 충분히 연고주의에 대한 영향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표 4-19> 언론사 형태별 출신 지역

	제주도내	제주도외	전체
방송사	28 (75.7%)	9 (24.3%)	37 (100%)
신문사	59 (100%)	0	59 (100%)
전체	87 (90.6%)	9 (9.4%)	96 (100%)

또한 방송사와 신문사간 매체별 특성에 따른 환경적 요인도 있다. 즉 언론사의 경영방식이나 방침, 뉴스의 생산방식, 조직 내의 역할 등 언론사 내부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은 기자의 언론보도에 대한 가치관이나 정치적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방송사와 신문사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4-20> 분석 대상자의 언론사 형태별 근무 경력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전체
방송사	16 (43.2%)	12 (32.4%)	4 (10.8%)	5 (13.5%)	37 (100%)
신문사	11 (18.6%)	16 (27.1%)	14 (23.7%)	18 (30.5%)	59 (100%)
전체	27 (28.1%)	28 (29.2%)	18 (18.8%)	23 (24.0%)	96 (100%)

<표 4-21> 분석 대상자의 언론사 형태별 직위

	사원	차장	부장(팀장)	취재·편집부장	보도·편집국장	전체
방송사	29 (78.4%)	2 (5.4%)	2 (5.4%)	2 (5.4%)	2 (5.4%)	37 (100%)
신문사	20 (33.9%)	20 (33.9%)	10 (16.9%)	6 (10.2%)	3 (5.1%)	59 (100%)
전체	49 (51.0%)	22 (22.9%)	12 (12.5%)	8 (8.3%)	5 (5.2%)	96 (100%)

2) 개인적 연고주의의 영향에 관한 방송사와 신문사간 비교 분석

(1) 혈연(血緣)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방송사와 신문사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혈연에 대한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표 5-39> 참조).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혈연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질문에 대해, 방송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6.7%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기자들이 게이트키퍼에 있어 혈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문사의 경우 역시 혈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5.7%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도 방송사가 16.2%, 신문사가 16.9%로 나타나, 기자들의 게이트키퍼 과정에 미치는 혈연의 영향 정도에 있어서는 방송사가 신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혈연의 영향을 다소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2> 언론사 형태에 따른 혈연의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방송사	21.6%	35.1%	27.0%	16.2%	0%	2.38	1.01
신문사	8.5%	37.3%	37.3%	16.9%	0%	2.63	0.87
전체	13.5%	36.5%	33.3%	16.7%	0%	2.53	0.93

<표 4-23>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혈연

	친가	외가	처가(시가)	기타	전체
방송사	78.6%	0%	0%	21.4%	100%
신문사	62.5%	4.2%	20.8%	12.5%	100%
전체	68.4%	2.6%	13.2%	15.8%	100%

혈연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혈연의 경우 방송사와 신문사 모두 ‘친가(각각 78.6%, 62.5%)’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연(地緣)

두 번째는 지연에 대한 영향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지연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방송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2.2%로 나타나 대체로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신문사의 경우는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7.5%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혈연과 마찬가지로, 방송사보다는 신문사가 상대적으로 지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4> 언론사 형태에 따른 지연의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방송사	18.9%	43.2%	27.0%	10.8%	0%	2.30	0.91
신문사	10.2%	37.3%	45.8%	6.8%	0%	2.49	0.77
전체	13.5%	39.6%	38.5%	8.3%	0%	2.42	0.83

<표 4-25>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연

	광역시(도)	시/군	읍/면/동	리(里)	전체
방송사	30.8%	30.8%	23.1%	15.4%	100%
신문사	6.7%	20.0%	50.0%	23.3%	100%
전체	14.0%	23.3%	41.9%	20.9%	100%

지연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받은 지연에서는, 혈연의 경우와는 달리 방송사와 신문사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방송사의 경우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연으로 '광역시(도)'와 '시/군'으로 나타난 반면 신문사는 '읍/면/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학연(學緣)

세 번째로는 학연에 대한 영향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학연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질문에 대해, 방송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8.4%로 나타나 대체로 게이트키퍼에 있어 학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문사의 경우 역시 학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매체간 비교에서는, 혈연, 지연과 마찬가지로 학연의 영향력에 대한 응답비율 역시 방송사가 신문사보다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방송사가 학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6> 언론사 형태에 따른 학연의 영향 정도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방송사	32.4%	45.9%	18.9%	2.7%	0%	1.92	0.79
신문사	13.6%	44.1%	32.2%	10.2%	0%	2.39	0.85
전체	20.8%	44.8%	27.1%	7.3%	0%	2.21	0.86

<표 4-27>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학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방송사	0%	11.1%	66.7%	22.2%	100%
신문사	19.0%	0%	66.7%	14.3%	100%
전체	13.3%	3.3%	66.7%	16.7%	100%

학연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받은 학연에서도 방송사와 신문사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방송사의 경우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학연으로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교’로 나타난 반면 신문사는 ‘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언론사 형태에 따른 개인적 연고주의 영향 정도

마지막으로는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분석 유목인 혈연, 지연, 학연, 기타 가운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연고는 무엇인지 방송사와 신문사간 비교 분석하였다. <표 5-45>에서와 같이 분석한 결과, 방송사는 ‘혈연(50%) > 학연(27.8%) > 지연(16.7%) > 기타’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신문사는 ‘학연(32.6%) > 지연(28%)·혈연(28%) > 기타’의 순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송사는 신문사보다 혈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으며, 신문사는 대체적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나 학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언론사 형태에 따른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개인적 연고

	학연	지연	혈연	기타	전체
방송사	27.8%	16.7%	50.0%	5.6%	100%
신문사	32.6%	27.9%	27.9%	11.6%	100%
전체	31.1%	24.6%	34.4%	9.8%	100%

따라서 기사 선택과 작성에 있어 언론사 형태에 따른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로 인한 영향 정도는 혈연, 지연, 학연 모두 방송사가 신문사보다는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방송사가 평균 20.7%인 반면 신문사는 31.7%로 나타나 신문기자들의 경우 방송기자들보다 중간자적인 입장을 다소 많이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직적 연고주의의 영향에 관한 방송사와 신문사간 비교 분석

(1) 직장 동료/상사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방송사와 신문사간

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먼저 직장의 동료나 상사와의 연고에 대한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표 4-29>참조).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직장 동료나 상사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방송사의 평균치는 2.89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신문사의 경우는 3.25로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따라서 게이트키퍼에 있어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 정도에서도 신문사가 방송사보다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9> 언론사 형태에 따른 동료/상사의 연고로 인한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방송사	8.1%	24.3%	40.5%	24.3%	2.7%	2.89	0.96
신문사	1.7%	11.9%	52.5%	27.1%	6.8%	3.25	0.82
전체	4.2%	16.7%	47.9%	26.0%	5.2%	3.11	0.89

(2) 경영진/주주

두 번째로는 언론사 경영진이나 주주와의 연고에 대한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표4-30> 참조).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경영진이나 주주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방송사의 평균치는 2.68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신문사의 경우는 3.25로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표 4-30> 언론사 형태에 따른 경영진/주주의 연고로 인한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방송사	10.8%	43.2%	16.2%	27.0%	2.7%	2.68	1.08
신문사	3.4%	10.2%	50.8%	28.8%	6.8%	3.25	0.86
전체	6.3%	22.9%	37.5%	28.1%	5.2%	3.03	0.99

따라서 게이트키퍼에 있어 경영진이나 주주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 역시 신문사가

방송사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방송사의 경우 표준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대상 방송사 가운데 경영방식이 공영과 민영체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 시청자위원/독자위원

세 번째로는 언론사 소속 시청자위원 혹은 독자위원과의 연고에 대한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표4-31> 참조).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시청자위원 혹은 독자위원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방송사의 평균치는 2.95, 신문사의 경우는 2.78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방송사보다 신문사가 다소 많이 나타났다.

특히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시청자위원 혹은 독자위원과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의 경우는 방송사가 40.5%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신문사는 18.6%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게이트키퍼에 있어 시청자위원 혹은 독자위원과의 연고로 인한 영향은 신문사가 방송사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1> 언론사 형태에 따른 시청자위원/독자위원으로 인한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방송사	10.8%	24.3%	24.3%	40.5%	0%	2.95	1.05
신문사	6.8%	30.5%	44.1%	15.3%	3.4%	2.78	0.91
전체	8.3%	28.1%	36.5%	25.0%	2.1%	2.84	0.97

(4) 언론계 동료/선배/단체

네 번째로는 지역의 같은 언론계 동료나 선배, 단체와의 연고에 대한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표4-32> 참조).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언론계 동료나 선배, 단체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방송사의 평균치는 2.70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신문사의 경우는 3.07로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다소 많이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따라서 게이트키퍼에 있어 언론계 동료나 선배, 단체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 역시 신문사가 방송사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2> 언론사 형태에 따른 언론계 동료/선배/단체의 연고로 인한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방송사	8.1%	35.1%	35.1%	21.6%	0%	2.70	0.91
신문사	1.7%	16.9%	57.6%	20.3%	3.4%	3.07	0.76
전체	4.2%	24.0%	49.0%	20.8%	2.1%	2.93	0.84

(5) 언론사 형태에 따른 조직적 연고주의 영향 정도

마지막으로는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분석 유목인 직장 동료/상사, 경영진/주주, 시청자위원/독자위원, 같은 언론계 동료/선배/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연고는 무엇인지 방송사와 신문사간 비교 분석하였다(<표4-33> 참조).

분석 결과, 방송사는 ‘직장 동료/상사(53.1%) > 언론계 동료/선배/단체(21.8%) > 경영진/주주(15.6%) > 시청자/독자위원(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신문사는 ‘직장 동료/상사(45.3%) > 경영진/주주(35.8%) > 언론계 동료/선배/단체(11.3%) > 시청자/독자위원(7.5%)’의 순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신문사와 방송사 모두 직장 동료/상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 동료/상사에 이은 영향은 신문사가 방송사에 비해 경영진·주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3> 언론사 형태에 따른 가장 많이 받은 조직적 연고

	직장 동료/상사	경영진/주주	시청자·독자위원	언론계 동료/선배	전체
방송사	53.1%	15.6%	9.4%	21.9%	100%
신문사	45.3%	35.8%	7.5%	11.3%	100%
전체	48.2%	28.2%	8.2%	15.3%	100%

따라서 기사 선택과 작성에 있어 언론사 형태에 따른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로 인한 영향 정도에서도 대체적으로 방송사가 신문사보다는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독자위원과의 연고로 인한 영향에서는 반대로 신문사보다 방송사가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직적 연고로 인한 영향 정도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방송사가 평균 29.0%인 반면 신문사는 51.3%로 매우 높게 나타나 신문기자들의 경우 방송기자들보다 중간자적인 입장을 많이 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인적 연고로 인한 영향 정도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31.7%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렇듯 중간자적인 입장을 많이 취한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연고주의에 대한 응답자들의 부정적 자기통제 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응답자들의 연고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음의 <연구문제 3>에서 확인하게 알 수 있다.

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결과

○ 연구문제 3 : 뉴스생산의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뉴스 생산의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대한 제주지역 기자들의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유목은 출신지역에 따른 인식도, 근무 경력에 따른 인식도, 조직 내 직위에 따른 인식도, 그리고 언론사 형태에 따른 인식도로 정하고 비교 분석을 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서술형 답변을 통해 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가 갖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1)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의 인구통계학적 비교분석

(1) 출신지역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출신 지역에 따른 인식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적 연고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제주도내 출신인 경우 전체의 66.2%가, 또 조직적 연고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65.1%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4> 참조).

이에 비해 타 지역 출신인 경우는 개인적 연고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100%, 또 조직적 연고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88.8%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 출신보다는 도외 출신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개인적 연고로 인한 보도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4> 연고로 인한 보도에 대한 출신 지역에 따른 견해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연고	제주도내	5.1%	51.2%	32.6%	0%	1.2%	2.21	0.74
	제주도외	44.4%	55.6%	0%	0%	0%	1.56	0.53
조직적 연고	제주도내	17.4%	47.7%	32.6%	2.3%	0%	2.20	0.75
	제주도외	44.4%	44.4%	11.1%	0%	0%	1.67	0.71

(2) 근무경력

근무 경력에 따른 인식도 분석에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5> 참조). 개인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은 근무 경력 10년 이하는 76.3%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근무 경력이 11~15년인 경우는 66.7%, 근무 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는 54.5%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개인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이 오래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5> 연고로 인한 보도에 대한 근무 경력에 따른 견해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연고	5년 이하	18.5%	55.6%	25.9%	0%	0%	2.07	0.67
	6~10년	25.0%	53.6%	21.4%	0%	0%	1.96	0.69
	11~15년	16.7%	50.0%	33.3%	0%	0%	2.17	0.71
	16년 이상	9.1%	45.5%	40.9%	0%	4.5%	2.45	0.86
조직적 연고	5년 이하	25.9%	51.9%	22.2%	0%	0%	1.96	0.71
	6~10년	28.6%	42.9%	25.0%	3.6%	0%	2.04	0.84
	11~15년	16.7%	55.6%	27.8%	0%	0%	2.11	0.68
	16년 이상	4.5%	40.9%	50.0%	4.5%	0%	2.55	0.67

조직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 역시 근무 경력이 오래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 10년 이하는 73.2%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근무 경력이 11~15년인 경우는 72.2%, 근무 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는 45.5%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16년 이상 근무 경력이 오래된 기자들의 경우 조직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개인적 연고주의보다는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직 내 직위

조직 내 직위에 따른 인식도 분석에서도 근무 경력에 따른 인식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개인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차장 이하 사원이 74.6%를 보였으나, 부장(팀장)은 66.7%, 취재·편집부장은 57.1%, 그리고 보도·편집국장은 20%로 크게 낮아졌다. 조직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 역시 마찬가지로 직위가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인식도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표 4-36> 연고로 인한 보도에 대한 조직 내 직위에 따른 견해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연고	사원	22.4%	59.2%	18.4%	0%	0%	1.96	0.64
	차장	18.2%	40.9%	40.9%	0%	0%	2.23	0.75
	부장(팀장)	8.3%	58.3%	33.3%	0%	0%	2.25	0.62
	취재·편집부장	14.3%	42.9%	28.6%	0%	14.3%	2.57	1.27
	보도·편집국장	0	20.0%	80.0%	0%	0%	2.80	0.45
조직적 연고	사원	22.4%	55.1%	20.4%	2.0%	0%	2.02	0.72
	차장	31.8%	31.8%	36.4%	0%	0%	2.05	0.84
	부장(팀장)	8.3%	41.7%	50.0%	0%	0%	2.42	0.67
	취재·편집부장	0%	71.4%	14.3%	14.3%	0%	2.43	0.79
	보도·편집국장	0%	20.0%	80.0%	0%	0%	2.80	0.45

주목할만한 점은 모든 직위에 상관없이 조직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인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도·편집국장과 취재·편집부장의 경우 부장(팀장)이나 차장에 비해 개인적·조직적 연고주의로 인한 보도에 대해서는 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4) 언론사 형태

언론사 형태에 따른 인식도, 즉 방송사와 신문사간의 인식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개인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방송사가 77.8%인데 비해 신문사는 64.4%로, 방송사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방송사가 75%인데 비해 신문사는 62.7%를 보였다. 즉 개인적 연고주의와 조직적 연고주의 모두 방송사가 신문사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역시 방송사가 신문사에 비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연고로 인한 보도에 대한 언론사 형태에 따른 견해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연고	방송사	25.0%	52.8%	22.2%	0%	0%	1.97	0.69
	신문사	13.6%	50.8%	33.9%	0%	1.7%	2.25	0.76
조직적 연고	방송사	27.8%	47.2%	22.2%	2.8%	0%	1.00	0.79
	신문사	15.3%	47.5%	35.6%	1.7%	0%	2.24	0.73

2)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의 심층 분석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작성시 서술형 질의를 만들어,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자 96명 가운데 32%인 31명의 기자가 서술형 질의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설문지 조사 분석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설문지 조사 분석에서는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

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체로 많았으나, 서술형 응답에서는 연고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가 11명(35.5%)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 10명(32.3%)보다 오히려 많게 나타났다. 특히 서술형 답변에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응답자가 9명(29.1%)으로 많게 나타났다.

(1) 언론보도의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면

가. 공동체 유지 및 인간관계 강화

서술형 질의에 응답한 기자들 중 일부는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는 지역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음은 물론 사회생활에 있어 인간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공동체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H사 기자)
- “이른바 ‘합의’, 즉 비록 알고 치는 박수지만 서로 공감대를 갖고 일치된 의견을 만든다는데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G사 기자)
- “제주지역의 경우 연고주의의 경향이 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일부 사안에 대해 약한 수준의 연고주의가 있으며, 도외적인 관점에서 지역 연고주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C사 부장)
- “사회생활에 힘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인간관계 강화, 정보의 폭을 넓힐 수 있다”(D사 기자)

나. 뉴스 가치 높은 정보 취득 및 심층 취재 가능

또한 응답자들은 연고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통해 뉴스 가치가 높은 정보는 물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미담 기사 등 심층적인 취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연고로 인해 일부 제보내용이 기사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다” (B사 기자)
- “취재원의 연고로 인해 자세하고 심도있는 취재 접근이 가능하다” (I사 기자)
- “미담 기사 등 긍정적인 기사의 경우 오히려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B사 국장)

이외에도 언론보도에 있어 조직적 연고주의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직’이라는 기준을 감안할 때 지역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B사 차장)

(2) 언론보도의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면

가. 객관성 상실 및 왜곡·과장 보도 발생

반면에 언론보도에 있어 기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연고주의로 인한 부정적인 면은 기사 작성에 있어 객관성 상실, 기사의 축소 혹은 과장, 왜곡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기사 청탁하는 상대방의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돼,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 발생한다” (H사 기자)
- “검증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나 시각에 치우쳐 의도된 방향으로 기사를 구성할 위험이 크다”(G사 기자)
- “기사가 축소/과장되는 경우가 있어 기사 가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다” (B사 부장)
-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개인적, 조직적 연고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피해야 한다” (F사 기자)

나. 언론보도의 부정적 통제요인, 연고주의

나아가 연고주의 자체가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언론보도는 기자의 신념, 가치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으로, 언론보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연고주의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연고가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E사 기자)
- “기자는 신념, 가치에 의해 기사를 작성해야 함으로, 연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B사 기자)

- “기사 논조와 선택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이라 생각한다”
(D사 기자)
- “연고주의에 의한 기사는 궁극적으로는 객관성과 사실성을 근거한 언론보도의 본래 기능을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A사 부장)

이외에도 연고주의가 자칫 왜곡된 조직 혹은 권력 관계로까지 고착화될 수 있다며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응답자도 있었다.

- “자칫 왜곡된 조직, 권력 관계로 고착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권력지향적이며 금전 거래 등의 부정적인 면이 크다” (H사 기자)

(3) 언론보도의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대한 포괄적 인식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서술형 답변에 응한 상당수의 기자들은 언론보도에 대한 연고주의의 영향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들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 “연고주의가 취재원으로 활용, 미담 및 현안 기사에 대한 정보 제공이 다원화 될 수 있는 반면 비판기사가 제어 당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B사 부장)
- “연고주의로 인한 기사는 사실에 입각한 진실(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이 자칫 상대방에게 편향적일 수 있다”(C사 기자)
- “연고주의는 지역사회에서 원초적인 인간관계와 공동체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시켜주지만, 반면 이것은 내집단 구성원들에게는 개방적이지만 외적집단 구성원들에게는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인간관계를 왜곡시키고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F사 기자)

이러한 포괄적 인식은 지역이라는 지리적, 사회적 특성상 연고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기사 작성이나 보도가 연고주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개인적 또는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C사 부장)
- “언론인도 사회인인 만큼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사안이 가벼울 경우의 기사협조는 인간관계형성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조직적 연고주의는 직원들의 사기와 조직 활성화에 해가 되므로 없어져야 한다” (A사 부장)

따라서 일부 응답자들은 연고주의의 영향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연고주의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보도를 하는가 하는 기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인식이 많았다.

- “제주지역은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사 작성에 어느 정도 연고주의의 영향은 받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일정 부분 영향을 받더라도 기사 작성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사 기자)
- “연고주의에 의한 영향은 폭넓은 취재원의 확보란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칫 기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자의 냉정한 시각을 견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D사 부장)
- “지역언론이라는 특성상 미담 등 관련기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읽을거리의 의미에서 기사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없다. 지나친 홍보성, 광고성이 없다면 기사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D사 기자)

이외에도 응답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연고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적시하며 긍정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활용한 발전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연고주의는 ‘불가원 불가근(不可遠 不可近)’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어떤 경우는 특종, 독종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쓸데없는 기사, 단순히 민원처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과 조직을 떠나 당사자와

- 이해당사자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그 기준 잣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D사 부장)
- “개인적 연고주의는 기자로서 접할 수 없는 분야·정보를 통해 뉴스 생산이 가능하게 하고, 조직적 연고주의는 검증된 뉴스로 쉽게 제작 가능하다. 반면에 자칫 연고에 얽매어 과장, 왜곡 보도될 우려가 있고, 보편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다” (H사 팀장)
 - “기사 발굴에 있어 범위가 없다. 따라서 연고주의 역시 기사 발굴의 좋은 범위가 될 수 있다. 개인적 수준에 있어서는 먼저 개인적으로 네트화한 가장 차별적이고 영향력 있는 기사를 발굴하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기사들을 발굴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자칫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시각화가 우려된다. 또 조직적 수준에서는 보편타당한 기사라는 점에서 기사 작성에 부담이 없고, 획일적이고 행사성의 기사 발굴이 용이하다. 하지만 이 역시 의도적인 보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H사 국장)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지역 기자들은 개인적 수준이든 조직적 수준이든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상당수가 연고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당수의 제주지역 기자들은 언론보도에서 연고주의가 갖는 양면성(兩面性)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면서, 뉴스 생산에 있어 연고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활용, 극대화하는 방안을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언론사들의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4개 방송사-KBS 제주총국, 제주MBC, 제주방송(JIBS), KCTV제주방송-과 제주지역 4개 일간지-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등 모두 8개 지역언론사의 보도국·편집국 데스크를 비롯해 뉴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기자 131명 가운데 설문지 조사에 응한 96명을 분석대상자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1 :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은 방송사와 신문사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 뉴스생산의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1-1>의 연구 결과 요약

기사 선택과 작성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6.3%로,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자(10.7%)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분석 유목들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혈연 2.53, 지연 2.42, 학연 2.21로 나타나, 제주지역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로 인한 영향은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적 수준의 연고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연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혈연(34.4%) > 학연(31.2%) > 지연(24.6%) > 기타(9.8%) 순으로 조사되었다. 혈연 중에서는 ‘친가(68.4%)’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학연 중에는 ‘고등학교(66.7%)’, 지연 중에는 ‘읍/면/동(41.9%)’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신지역에 따른 개인적 수준의 연고로 인한 영향 정도는, 제주도내 출신보다는 도외 출신의 경우가 혈연, 지연, 학연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개인적 수준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언론사의 근무 경력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개인적 연고를 분석한 결과, 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응답자들의 경우는 학연과 지연, 혈연에 있어 큰 편차없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는 52.9%가 혈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 직위에 따른 개인적 연고

주의의 영향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차장 이상 간부급 사원들의 경우는 학연(35.5%)과 지연(29%)의 영향에 비해 혈연(22.5%)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반면, 사원의 경우는 혈연(46.7%)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문제 1-2>의 연구결과 요약

기사 선택과 작성에 있어,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연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와는 달리 확연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네 가지 분석유목 들을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직장의 동료·상사(48.2%) > 경영진·주주(28.2%) > 언론계 동료·선배·단체(15.4%) > 시청자위원·독자위원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있어 직장의 동료·상사, 경영진·주주, 시청자위원·독자위원, 언론계 동료·선배·단체 등 조직적 수준의 연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28.7%)와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자(28.6%)의 비율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평균치 역시 2.98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적 수준의 연고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치가 2.38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직적 수준의 연고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분석 유목들의 평균치를 각각 살펴보면, 직장의 동료·상사 3.11, 경영진·주주 3.03, 시청자위원·독자위원 2.84, 언론계 동료·선배·단체 2.93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언론보도에 있어 직장의 동료·상사나 경영진·주주 등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다소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언론보도에 있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개인적 연고주의의 양상과는 그 영향 정도에 있어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다.

언론사의 근무 경력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조직적 연고를 분석한 결과, 근무 경력이 1~15년인 응답자들의 경우는 직장의 동료 및 상사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54.7%)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근무 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는 경영진과 주주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38.1%)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 내 직위에 따른 조직적 연고주의의 영향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일반 사원의 경우는 직장 동료·상사(61.4%)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간 그룹인 차장과 부장(팀장)의 경우는 경영진·주주(각각 47.1%, 41.7%)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도·편집국장과 취재·편집부장들의 경우는 언론계 동료·선배·단체(각각 40.0%, 42.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문제 2>의 연구결과 요약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방송사와 신문사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혈연에 대한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혈연으로 인한 영향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6.7%의 응답자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신문사의 경우(45.7%)보다 혈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지연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방송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2.2%로, 신문사의 47.5%보다 많이 나타나 역시 방송사가 신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학연의 영향 정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학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방송사의 경우 78.4%로, 신문사의 57.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에 있어 방송사가 신문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적 수준의 연고는 무엇인지 방송사와 신문사간 비교 분석한 결과, 방송사는 혈연(50%) > 학연(27.8%) > 지연(16.7%)의 순으로 나타남에 비해, 신문사는 학연(32.6%) > 지연(28%)·혈연(2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신문사의 경우 학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반면 방송사의 경우는 혈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가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방송사와 신문사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직장의 동료나 상사와의 연고에 대한 영향 정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직장 동료나 상사의 영향 정도에서는 방송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32.4%로 나타난 반면 신문사의 경우는 13.6%로 크게 낮았다. 뿐만 아니라 기사를 선택, 작성하는데 있어 경영진이나 주

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방송사는 54.0%로 나타난 반면 신문사는 13.6%로 크게 낮았고, 언론계 동료나 선배, 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의 경우도 방송사(43.2%)보다는 신문사(18.6%)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게이트키퍼에 있어 직장 동료나 상사, 경영진이나 주주, 언론계 동료나 선배, 단체 등과의 연고로 인한 영향은 방송사가 신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독자위원의 경우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즉 시청자위원이나 독자위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방송사(35.1%)보다 신문사(37.3%)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다. 시청자위원이나 독자위원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의 경우도 방송사는 40.5%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신문사는 18.6%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게이트키퍼에 있어 시청자위원 혹은 독자위원과의 연고로 인한 영향은 방송사가 신문사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연구문제 3>의 연구결과 요약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출신 지역에 따른 인식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적 연고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제주도내 출신인 경우 전체 86명 가운데 66.2%(57명)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조직적 연고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65.1%(56명)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연고이든 조직적 연고이든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타 지역 출신인 경우는 개인적 연고에 대해서는 100%(9명)가, 조직적 연고에 대해서는 88.9%(8명)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내 출신보다 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 경력에 따른 인식도 분석에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은 근무 경력 10년 이하는 76.3%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근무 경력이 11~15년인 경우는 66.7%, 근무 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는 54.5%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개인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이 오래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직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 역시 근무 경력이 오래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 10년 이하는 73.2%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근무 경

력이 11~15년인 경우는 72.2%, 근무 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는 45.5%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직 내 직위에 따른 인식도 분석에서도 근무 경력에 따른 인식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개인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차장 이하 사원이 74.6%를 보였으나, 부장(팀장)은 66.7%, 취재·편집부장은 57.1%, 그리고 보도·편집국장은 20%로 크게 낮아졌다. 조직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 역시 마찬가지로 직위가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인식도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언론사 형태에 따른 인식도, 즉 방송사와 신문사간의 인식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개인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방송사가 77.8%인데 비해 신문사는 64.4%로, 조직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방송사가 75%인데 비해 신문사는 62.7%로 나타나 방송사가 신문사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작성시 서술형 질의를 만들어,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연고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가 11명(35.5%)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 10명(32.3%)보다 오히려 많게 나타났다. 특히 서술형 답변에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응답자가 9명(29.1%)으로 많게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주지역 기자들은 개인적 수준이든 조직적 수준이든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내 출신보다는 타 지역 출신이 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였고, 또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조직 내 직위가 낮을수록, 그리고 신문사보다는 방송사가 연고주의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뉴스 기사를 선택, 작성함에 있어 게이트키퍼의 주체인 기자와 데스크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 조직적,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통제 요인이 발생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기자나 언론사 모두 조직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적, 혹은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network)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 연고로 인한 통제가 뉴스 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언론사들의 언론보도에 있어 실제 연고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주지역 연고주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제주지역 기자들은 언론보도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영향은 대체로 받지 않는 반면 직장 동료·상사나 경영진·주주 등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로 인한 영향은 상당 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타 지역의 결과와는 그 영향 정도나 양상에 있어 다른 차이를 드러냈다.

먼저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영향에 대해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송인호, 2001; 박동숙·조연하·홍주현, 2002; 임영호·박소라·김은미, 2004; 박임근, 2005; 주정민·박복길, 2007)에서는 지역언론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상 게이트키퍼 과정에 있어 학연과 지연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제주지역 기자들은 언론보도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로 인한 영향은 대체로 받지 않는 것(평균치 2.38)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송인호, 2001; 박동숙·조연하·홍주현, 2002; 임영호·박소

라·김은미, 2004)에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적 연고가 학연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지역 기자들의 경우는 혈연(34.4%)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촌락내혼(村落內婚)의 관습으로 인해 친척과 외척을 구분하지 않는 개방적이고 강한 제주의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도,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다소 변화된 모습을 드러냈다. 김혜숙(2008)은 제주지역의 친척, 즉 ‘웬당’은 부계혈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척과 처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범주를 형성하고, 나아가 동네어른에게도 모두 ‘삼촌(삼촌)’으로 호칭하면서 마을사람 모두를 ‘하나의 웬당’처럼 여기는 강한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⁴³⁾.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즉 응답자의 대부분이 혈연 가운데에서도 ‘친가’의 영향(68.4%)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은 제주지역의 ‘웬당의식’도 크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영향 정도에서는 게이트키퍼 과정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직장의 동료·상사의 평균치는 3.11, 경영진·주주 3.03, 시청자위원·독자위원 2.84, 언론계 동료·선배·단체 2.93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지역 기자들은 언론보도에 있어 직장의 동료·상사에 이어 경영진·주주 등의 연고로 인한 영향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언론보도에 있어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개인적 연고주의의 양상과는 그 영향 정도에 있어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한국언론재단이 전국의 언론인 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인 의식조사’의 결과⁴⁴⁾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제주지역 언론사들의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는 그 영향 정도에 있어 타 지역보다는 다소 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07년 한국언론재단이 전국의 언론인 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인 의식조사’의 결과에서는 기자들이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데스크를 포함한 회사 상사’로 나타났는데 평균치가 3.91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기자’에 대한 평균치 역시 3.35로 조사되

43)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웬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3, p.383-384.

44) 한국언론재단이 2007년 전국의 언론인 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인 의식조사’의 결과, 기자들이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데스크를 포함한 회사 상사’라고 76.1%가 응답한 반면 ‘친구나 친지’의 경우는 13.3%로 분석 유목 가운데 가장 영향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 언론사들은 ‘직장 동료·상사’에 대한 영향 정도의 평균치는 3.11, ‘언론계 동료·선배’에 대한 평균치는 2.93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모두 낮게 나타나, 제주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영향 정도 역시 타 지역보다는 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제주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가 작용하는 양상을 살펴 본 결과, 연고주의가 미치는 영향 정도는 타 지역 출신보다 제주도내 출신 기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근무 경력이 오래 될수록, 또한 조직 내 직위가 높을수록 연고주의의 영향력도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분석에서 더 확연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타 지역 출신이 제주도내 출신보다 연고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조직 내 직위가 낮을수록 연고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 강하게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의 배경에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타 지역 출신의 경우 지역출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연고의 개연성이 낮고, 근무 경력 역시 경력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연고의 범위나 연고로 인한 영향의 개연성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직 내 직위의 경우는 근무 경력과도 상관성을 갖고 있지만,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경우 그 직위에 따라 영향 정도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대상자들의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개인적 연고주의는 기자들의 개인적 가치관과 자율통제 등에 의해 그 영향력이 매우 적게 나타나는 반면, 직장 동료·상사, 경영진·주주 등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는 기자 개인의 의사보다는 조직의 관행이나 집단 의식 등에 의해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앙일간지 지방판 호남면의 게이트키퍼 과정에 나타나는 지방 주재기자와 데스크들의 통제요인들을 분석한 박임근(2005)의 연구에서, 조직적 입장이 개인적 입장과 상충되는 경우 조직적 입장을 우선한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셋째, 언론보도에 미치는 연고주의의 영향 정도와 양상에 대해 방송사와 신문사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방송사가 신문사보다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연고주의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조

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의 경우는 그 영향 정도의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방송사와 신문사간의 이러한 차이는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제주지역 출신의 인물로 구성된 신문사에 비해 방송사의 경우는 타 지역 출신 인물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기자들의 평균 연령이나 근무 경력, 조직 내 직위가 신문사에 비해 방송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는 경영구조적인 측면이다. 지역 신문사의 경우 지역 방송사보다 자본 규모나 광고 매출 등 경영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⁴⁵⁾. 또한 지역 방송사의 경우 광고수입의 대부분을 중앙방송사에 의존하는 반면 지역 신문사의 경우는 지역 내 광고주에 한정되기 때문에 경영진과 간부들의 영향력이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 방송사와 달리 신문사에서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는 연고가 경영진·주주와의 연고로 나타났다는 점⁴⁶⁾이다. 이러한 지역신문 뉴스의 통제요인으로서 경영진·주주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기존 여러 선행연구(차원숙, 1991; 정상윤, 1995; 송인호, 2001; 박임근, 2005; 남효윤, 2005; 조철래, 2007)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외에도 각 매체 특성에 따른 제도적·조직적 관행도, 방송사와 신문사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매체 특성에서 오는 제도적·조직적 관행은 ‘시청자위원·독자위원’의 영향 정도에서 가늠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독자위원의 연고로 인한 영향 정도에서 방송사는 40%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신문사는 18.7%만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해, 오히려 방송사가 신문사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사의 독자위원회와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제도적으로 그 기능과 권한이 다르다는 점⁴⁷⁾과 이로 인해 각 언론사의 언론

45) 한국언론재단의 <2007 언론경영실태분석>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전국 일간지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앙지의 경우 2005년부터 2년 연속 총자산영업이익률이 호전되고 있는 반면 지방지의 경우는 3년 연속 적자를 보이며 영업손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경영진·주주와의 연고로 인한 영향 정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방송사는 평균 2.68인 반면 신문사는 3.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7) 현행 <방송법>의 제90조에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나 시정요구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의무화한 반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보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관행적으로 투영된 결과라 하겠다.

넷째,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에 대한 제주지역 기자들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상당수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인식을 포괄하며 유연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에 대한 제주지역 기자들의 인식은 기사 선택, 작성에 있어서의 연고주의의 영향 정도와 유사하게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조직적 연고주의의 영향 정도가 강한 만큼 기자들의 인식 역시 개인적 연고주의보다는 조직적 연고주의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였다.

하지만 서술형 답변을 통해 심층적인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설문조사 분석과는 달리 부정적 견해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기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술형 질의에서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제주지역 상당수의 기자들은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연고주의에 대한 포괄적이며 유연한 인식은 기존의 사회적 통념(通念)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간접인 경험에서 나오는 인식의 결과라 보아진다. 즉 근무 경력이 오래 될수록, 조직 내 직위가 높아질수록 연고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약화되고, 긍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근무 경력이 높을수록, 조직 내 직위가 높을수록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례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보도국장의 경우 80%, 부장(팀장)의 경우 50%로 나타났다. 이렇듯 중간자적인 입장을 많이 취한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서술형 심층조사에서 알 수 있듯 연고주의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그만큼 포괄적이며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당수의 제주지역 기자들은 언론보도에서 연고주의가 갖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면서, 자기통제를 통하여 기사의 선택과 작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뉴스 생산에 있어 연고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활용, 극대화하는 방안을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

는 ‘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설치를 할 수 있다(제9조)’고 권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고주의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면, 연고주의는 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온 지역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내적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와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역언론에 대한 연구에 있어 내적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마저도 대부분 특정 언론매체 혹은 특정 직위나 계층 등을 대상으로 단면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특히 기존 연고주의에 대한 언론인들의 부정적 인식과 자기통제 의식이 강한데다 좁은 지역사회라는 특성 등으로 인해, 연고주의와 지역언론을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본 연구 역시 설문조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설문지 회수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미약하나마 뉴스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제주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와 게이트키퍼 과정에 미치는 연고주의의 영향 정도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가 미치는 부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함께 조명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의 영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연고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 언론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다양하고 심층적인 뉴스를 생산하는데 연고주의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마동훈(1986)도 혈연·지연·학연이 언론보도에 유용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아직은 공론화되지 못한 제주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지양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 언론인들이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를 오히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기존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 언론보도의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를 다룬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 본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도 적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는데,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접근을 위해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아울러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제주지역 연고주의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제주지역의 독특한 연고주의인 ‘켄당문화’와의 상관성도 유추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켄당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나 타 지역의 언론보도와 연고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매우 미흡해, 켄당문화와의 상관성은 물론 제주지역 연고주의가 갖는 타 지역과의 변별력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향후 타 지역의 언론보도와 연고주의에 관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제주지역 언론보도에 있어 연고주의가 갖는 특성은 더욱 명확해지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전수조사의 측면에서 제주지역 8개 언론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설문지 자료 확보에 있어 일부 분석 대상자들의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원 수가 적은 부장급, 국장급 간부들의 설문지가 최대한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의 설문자료가 일부 회수되지 않아 비교분석 연구에 아쉬움을 남겼다. 실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상당수 대상자들은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지역 언론인들에게 있어 연고주의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연구주의에 대한 자기 통제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셋째 지역 언론보도와 연고주의에 관한 연구에 있어 분석대상자를 기자와 데스크뿐만 아니라 경영진·임원까지 확대하였으면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언론사 경영진과 임원의 경우 뉴스 생산과정에는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문조사보다는 심층면접의 자료 수집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아직까지 지역언론의 뉴스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내적 통제요인

으로서 연고주의의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으나, 외적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의 영향 역시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켄당문화’라는 독특한 공동체문화가 잔존하는 제주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내·외적 통제요인으로서의 연고주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강형욱, 지방언론인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2.
- 고영철·최낙진, 제주지역 신문뉴스의 다양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관련기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6권 2호, 2006.
- 권장원, 한국 언론사의 관계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2004.
- 권장원·박한우, 한국 방송 뉴스 조직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집중 경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9-4호, 2005.
- 김동규, 뉴스의 결정양식에 관한 구조적 접근, <언론문화연구>, 6집,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1988.
- 김사승, 전문기자의 전문성과 뉴스의 질을 구축하는 취재보도 관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충원경로에 따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2004.
- 김선업, 한국사회 연출망의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학>, 제26집, 1992.
- _____, 연고주의의 분석적 의의, <사회와 문화>, 6권 1호, 고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 김세철, 지역사회의 발전과 언론의 역할, <사회과학논총>, 계명대학교, 2000.
- 김우룡, 방송보도론, 서울: 나남출판, 1993.
- 김정탁, 언론사와 언론인, 「한국언론학의 쟁점과 진로」, 한국언론학회 편, 나남, 1991.
- 김진홍, 언론통제의 정치학, 서울:홍익신서, 1983.
- 김태일, 제주의 쉼당문화와 건축문화에 대한 비판, <건축 제51권>, 제9호, 2007.
- 김현주, 한국인의 연출 커뮤니케이션,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II-한국인과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회 편, 서울: 한국언론학회, 1993.
-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쉼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3.
- 김혜숙 외, 제주문화상징, 제주특별자치도, 2008.
- 김홍성, 지역방송 뉴스형태 및 생산과정에 미치는 요인: KBS와 GTB 뉴스분석을 중심

- 으로,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2005.
- 김희정·최낙진, 제주 A형 광고의 저널리즘적 가치에 대한 함의: 제주지역신문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제66호, 2005.
- 남효윤, 언론의 보도자료 이용과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지역신문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5.
- 마동훈, 국회의원 의 언론매체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계변인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6.
- 문석남 외,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서울: 일진사, 1990.
- 박동숙·조연하·홍주현,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한국언론학보>, 45-특별호, 2002
- 박명진,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과와 그 쟁점,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언론학논선>4, 서울: 나남, 1990.
- 박소라·마동훈, 지역방송 뉴스 비교연구, 한국언론재단, 2000.
- 박승관,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 서울: 전예원, 1994.
- 박임근, 중앙일간지 지역면 게이트키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 주재기자와 호남·제주면 데스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박준영, 한국신문 뉴스결정의 역학적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1997.
- 배현석, 지역TV 뉴스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공중파 TV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2002.
- 서정우·차배근·최창섭, 언론통제이론, 서울: 법문사, 1996.
- 송인호, 지역언론 게이트키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언론사 데스크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유재천·이민웅, <정부와 언론>, 서울: 나남, 1994.
- 유정아, 텔레비전 뉴스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 정치부 뉴스 제작과정에서의 내적 통제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0.
- 유창하, Gatekeeping의 內的統制에 관한 연구: 記者들의 뉴스 價値觀과 報道內容을 中

- 心으로,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9.
- 유희림, 뉴스 게이핑과정에 관한 연구 : YTN 영향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5.
- 원우현, 한국 언론제도의 구조적 특성, 한국미디어 문화비평, 서울: 나남, 1987.
- 이강수,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게이트키퍼 연구론, 한양대논문집 11권, 1977.
- 이영재, 한국언론인의 언론사 내적 통제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1995.
- 이완수, 인물뉴스의 특성과 결정요인 연구-사회자본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2권, 2006.
- 이재경·김학회, 방송뉴스: 취재와 보도, 서울: 나무와 숲, 1999.
- 이창현, 텔레비전 뉴스생산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13권 2호, 1991.
- 이현모, 연고주의가 군 인사고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1995.
- 이현숙, 김영삼 정권하의 언론의 내적통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1997.
- 이훈구, 연고주의, 서울: 법문사, 2003.
- 임영호·김은미·박소라, 한국 일간지 언론인의 커리어 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특별호, 2004.
- 전환성, 텔레비전 뉴스의 사회적 현실구성 기능에 관한 연구, <언론문화연구>, 7:247-306, 1989.
- 정상윤, 신문사의 네트워크와 통제에 관한 연구: 지역신문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1995.
- _____,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구: 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연구원 논집>, 4집, 1998.
- 정은채, 지방언론인의 NEWS 선정에 관한 가치관의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신문방송대학원, 1983.
- 조광희, 언론인의 직업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 방법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1989.
- 조성호·송민정, 시청자와 제작자의 지역성 인식차이와 지역프로그램 편성,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社會科學>, Vol.12, 2000.
- 조철래, 지역신문의 선거보도와 게이트키퍼에 대한 연구: 갠즈(Gans)의 다원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 두레학술, 신문방송학자료총서, 19권, 2007.
- 주정민·박복길, 지역방송 뉴스 특성, 구성방식과 지역성 구현과의 관계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2007.
- 차배근, <언론통제 이론의 개념과 체계, 언론통제이론>, 서울: 법문사, 1978.
- 차원숙, 지방신문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구조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1.
- 최규동, 지방신문독자에 의한 사회적 통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 최낙진, 제주지역 방송 뉴스의 다양성: '특별자치(도)' 보도를 중심으로, <동서언론>, 제10집, 2006.
- 한국언론연구원, TV뉴스보도,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0.
- 한국언론재단, 2008 한국신문방송연감,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8.
- 한국언론재단, 한국의 언론인 2007,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7.
- 한국언론재단, 2007 언론경영실태분석, 서울: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 2007-05, 2007.
- 허명구, 지방방송 언론인의 뉴스가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6.
- 홍성구, 지역사회 구조와 권력 만들기,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1996.
- 홍은희, 신문사의 경영적 통제요인과 기자의 홍보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홍보학회, <홍보학연구>, Vol.10, 2006.

- Altschull, H.J Agents of power, New York:Longman,1984.
- Bantz, C. R., McCORKE, s. & Baade R.C.,"The news factory." In G. C. Wilhoit & H. DeBock(Eds.),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Beverly Hills, CA: Sage, Vol. 2, 1981.
- _____, C. R., Organizing and enactment: Karl Weick and the production of news, In S. Corman, S. Banks, C. Bantz & M. Mayer(Eds.), Foundations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 reader, New York:Longman, 1990.
- Berelson, B.. Communication and public opinion, In Wilbur Schramm (Ed.),The process and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54.
- Breed Warren, Social Control in the News Room; A Funtional Analysis, Socail Forces, No.33, 1955.
- Fishman, M.,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 Univ. of Texas Press, 1980.
- Flegel, R.C. & Chaffee, S. H., Influence of editors, readers and personal opinion- onson reporters. Journalism Quarterly, 48,645-651, 1971.
- Gans, H.,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Pantheon, 1979.
- Gieber, W. & Johnson, W., The city hall beat: A study of reporter and source roles. Journalism Quarterly, 38,289-297, 1961.
- Gitlin, T., The whole is watching.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0.
- Goffman, E., Frame analysis. New York : Harper & Row, 1974.
- Hale, F. D., Press releases vs. newspaper coverage of California Supreme Court decisions. Journalism Quarterly, 55,696-702, 1978.
- Herman, E., & Chomsky, N. , Manufacturing consent. New York: Pantheon, 1988.
- Lewin,K., Psychological ecology in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New York :

- Happer, 1951.
- McQuail, Denis and Sven Windal, 《커뮤니케이션 모델》, 임상원 옮김, 서울: 나남, 1994.
- Sachsman, D. B., Public relations influence on coverage of environment in San Francisco area. *Journalism Quarterly*, 54.54-62, 1977.
- Sandman, P. M., Rubin, D. M. & Sachsman, D. B., *Media*(2nded), NJ : Prentice Hall, Inc, 1970.
- Shoemaker, P. J., *Gatekeeping*. Beverly Hills, CA : Sage., 1991.
- Shoemaker, P.J. & Reese, S. D., *미디어 사회학* (김원룡 역). 서울: 나남. (원서출판, 1991/1996).
- Tuchman, G.(1995), *메이킹 뉴스 :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박홍수 역). 서울: 나남. (원서출판, 1978).
- Walters, L. M. & Walters, T. N., Environment of confidence : Daily newspaper use press release . *Public Relations Review*, 18,31-46, 1992.
- White, D., “The Gatekeepers: A Case study in the Selection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27, 1950.

【Abstract】

Research on the Inner Control Factors of Local Media Report - Focus on the Relationship of Jeju Province

Dong-Hun Hyun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says how effect relationships as the inner control factors gathering news reports at Jeju Province media report, and have Jeju journalists' recognitions about this problem. For this research, There were investigation to the journalists of 8 local media, 4 Jeju province broadcasting systems and 4 daily news paper publish companies, who gather news everyday.

As a result of analysis, Personal relationship such as blood relation, regional relation and school relation hardly has effect on journalists of Jeju province, on the other hand, systemic relationship like co-workes, excutive, and stockholders has. But this research points to the differenc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other regions' preceding research to the power of influence or the aspect. Namely, Personal relationship such as Blood relation, regional relation and school relation hardly has effect on journalists of Jeju Province and the influence of systemic relationship is weaker than other provin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lationship as a control factors at Jeju Province media report, as a whole, the longer the career and the higher the rank of a company, the more powerful aspect. As the analysis of the recognition about the relationship, it is more certain. Most Jeju province journalists have negative understanding very powerfully about relationship at media report. But most journalists recognize a good and weak point of relationships. And it was caught

in self-control when news reporting. Also this research indicates most journalists take a good point of relationships, maximize that.

Subject: local media report, inner control factors, gatekeeping, relationships, blood relation, regional relation, school relation



【부록 : 설문지】

지역 언론의 내적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연고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선 제주지역 언론사들의 내적 통제요인으로서 개인적(個人的) 수준의 연고주의와 조직적(組織的) 수준의 연고주의가 뉴스생산과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언론보도의 내적 통제요인으로서 연고주의가 갖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연구 자료에만 사용하며 외부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성실히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11월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현동헌,

(연락처 : 016-***-****)

● 먼저 통계처리를 위한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① 방송사 ② 신문사

2) 귀하께서 언론사에 근무한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년 이하 ② 6 ~ 10년 ③ 11 ~ 15년 ④ 16년 이상

3) 귀하께서 현재 맡고 계신 직위는 무엇입니까?

- ① 사원 ② 차장 ③ 부장(팀장) ④ 취재·편집부장 ⑤ 보도·편집국장

4) 귀하의 출신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제주도내 ② 제주도외

● 다음은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 5) 기사 선택/작성에 있어 학연(學緣)의 영향을 받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6) 위 5)번의 유경험자의 경우,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학연(學緣)은 무엇입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 7) 기사 선택/작성에 있어 지연(地緣)의 영향을 받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8) 위 7)번의 유경험자의 경우,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지연(地緣)은 무엇입니까?
① 광역시(도) ② 시/군 ③ 읍/면/동 ④ 리(里)
- 9) 기사 선택/작성에 있어 혈연(血緣)의 영향을 받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10) 위 9)번의 유경험자의 경우,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혈연(血緣)은 무엇입니까?
① 친가 ② 외가 ③ 처가(시가) ④ 기타()
- 11) 기사 선택/작성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연고는 무엇입니까?
① 학연 ② 지연 ③ 혈연 ④ 기타()
- 12) 개인적 연고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 다음은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 13) 기사 선택/작성에 있어, 소속 언론사의 동료/상사 등의 연고(緣故)로 인한 영향을 받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기사의 선택/작성에 있어, 소속 언론사의 경영진/주주 등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받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기사의 선택/작성에 있어, 소속 언론사의 시청자위원/독자위원 등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받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기사의 선택/작성에 있어, 같은 언론계의 동료/선배/단체 등의 연고로 인한 영향을 받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기사의 선택/작성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연고는 무엇입니까?

① 직장 동료/상사 ② 경영진/주주 ③ 시청자독자 위원 ④ 언론계 동료/선배

18) 조직적 연고주의로 인한 언론보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19) 끝으로, ‘개인적 수준’의 연고주의와 ‘조직적 수준’의 연고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